

제 3 회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조 영 배

제주 무악(巫樂)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연구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강 영 아

2006년 12월

제주 무악(巫樂)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연구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6년 12월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강 영 아

강 영 아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2006년 12월

- 목 차 -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3
4. 용어의 정의	4
II. 제주 무악 개요	6
1. 제주 무악의 종류	6
2. 제주 무악의 특성	8
3. 제주 무악의 교육적 의의	12
III. 초등 국악 교육과정 개요	14
1. 초등 국악 교육의 방향과 특성	14
2. 초등 국악 교육의 영역별 내용	15
3. 초등 국악 가창교재의 내용 개요	23
IV.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26
1. 초등교재 개발을 위한 선율 추출	26
1) 선율 추출 방향과 원칙	26
2) 제주 무악의 가장교재용 선율 추출	29
(1) 천지왕본풀이 선율 추출	29
(2) 멩감본풀이 선율 추출	34

(3) 영감본풀이 선율 추출	37
2. 추출된 선율의 음악수업 적용방안	42
1) 적용방향과 원칙	42
2) 지도내용 및 적용 개요	43
3) 무악선율별 수업의 실제	44
(1) 천지왕본풀이 선율의 수업안	44
(2) 맹감본풀이 선율의 수업안	52
(3) 영감본풀이 선율의 수업안	57
V. 결론 및 제언	65
1. 결론	65
2. 제언	66
※ 참고문헌	67
※ 부록	69
※ 국문초록	84
※ ABSTRACT	86

<표목차>

<표 1>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 교육 관련 이해 영역 내용	15
<표 2>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 교육 관련 활동 영역 내용	17
<표 3> 국악 가창 제재곡의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	19
<표 4> 초등가창교재 개발 대상의 음악구조 분석	26
<표 5> 천지왕본풀이의 가사모음	32
<표 6> 멩감본풀이의 가사모음	36
<표 7> 영감본풀이의 가사모음	40
<표 8>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지도계획	44

<악보목차>

<악보 1> 천지왕본풀이(4+ 1)마디의 주요선율 <천지왕 선율 1>	30
<악보 2> 천지왕본풀이(3+ 1)마디의 주요선율 <천지왕 선율 2>	31
<악보 3> 천지왕본풀이(5+ 1)마디의 주요선율 <천지왕 선율 3>	31
<악보 4> 군웅덕담풀이 후렴 선율 <천지왕 선율 4>	31
<악보 5> 군웅덕담풀이 선소리 선율 a <천지왕 선율 5>	32
<악보 6> 군웅덕담풀이 선소리 선율 b <천지왕 선율 6>	32
<악보 7> 멩감본풀이 주요선율 a <멩감본 선율 1>	35
<악보 8> 멩감본풀이 주요선율 b <멩감본 선율 2>	35
<악보 9> 멩감본풀이 주요선율 c <멩감본 선율 3>	35
<악보 10> 진서우제소리의 선소리 선율 a <서우제 선율 1>	38
<악보 11> 진서우제소리의 선소리 선율 a' <서우제 선율 2>	38
<악보 12> 진서우제소리의 후렴 선율 <서우제 선율 3>	38
<악보 13> 자진서우제소리의 선소리 선율 <서우제 선율 4>	39
<악보 14> 자진서우제소리의 후렴 선율 <서우제 선율 5>	39

<부록목차>

<부록 1> 천지왕본풀이(대별왕 소별왕) 악보	70
<부록 2>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72
<부록 3> 멩감본풀이(수명신 사만이) 악보	76
<부록 4> 멩감본풀이 이야기	78
<부록 5> 멩감본풀이 가락창작 학습지(2차시)	80
<부록 6> 영감본풀이(서우제소리) 악보	81
<부록 7> 영감본풀이 모듬별 가사창작 학습지(3차시)	83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인류 모두는 각각 고유의 음악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나 문화의 모든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음악에서도 이 고유성과 전통성이 남의 것과 구별될 때 그 음악은 더욱 값지고 귀한 것이 된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유성과 전통성을 가진 음악이 있다¹⁾.

언어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말을 먼저 배우고 외국어를 배워야 하듯, 음악교육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우리음악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음악을 통해 우리 고유 정서를 이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현 제7차 교육과정은 국악교육을 학교에서의 음악과의 목표 중 하나에 제시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으며²⁾, 교과서에서의 국악곡 비중도 확대되어 교과서 내의 국악 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40%에 이른다³⁾.

교과서 내의 국악 내용은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고, 국악 교육 내용 중 가장 활동은 음악 전문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활동으로써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서 감상 영역을 제외한 국악 제재곡은 기본적으로 가창 활동이 이루어지고 난 뒤 다른 활동을 하도

1) 신대철,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 (서울:교보문고, 1993), 15쪽.

2) 교육인적자원부, 『음악 6 교사용지도서』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10쪽.

학교에서의 음악과의 목표는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한다. 1)음악 개념의 이해, 2) 음악 활동을 통한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 증진, 3) 음악에 대한 심미적 안목, 4) 음악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 함양, 5) 우리 음악 문화의 계승 및 새로운 음악 문화 창달.

3) 변미혜, 「바람직한 국악교육의 방향 모색」, 『중앙국악교육 제1호』 (서울:중앙대학교출판부, 2005), 6쪽.

록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의 국악가창교육의 비중은 높으나, 국악 가창곡은 민요와 전래동요, 그리고 민요 음계로 만든 국악창작동요로 한정하여 지도되어 왔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가창지도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학생들에게 현재보다 더 다양한 국악곡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육지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고 음악 또한 지역적 특색이 강하다. 제주도는 신들의 섬이라고 불릴 만큼 무속이 생활과 밀착되어 있어 무속의례가 성행하여 아직도 많은 무악이 전해내려 오고 있으며, 이 중 무악이 민요화 된 곡도 있을 정도로 제주도민에게 친숙하다. 최근 들어 제주 무악의 연행상의 연구, 음악적인 연구, 구비문학적인 연구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그 가치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초등 음악 교육에서 좀 더 다양한 국악가창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주 무악을 초등가창교재로 개발하여 그 지도를 통한 다양한 음악적 경험과 음악성 신장을 연구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지도에 기준을 두어, 선행학습 및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을 통해 제주 무악에 관한, 특히 본 연구자가 개발하고자 하는 본풀이에 관하여 알아보고 교육적인 시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교재 개발의 기본 토대가 되는 초등 국악 교육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고 교재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제주 무악을 있는 그대로 지도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해 선율추출 및 지도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제주 무악의 열두 본풀이 중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에 한정하여 개발하고자 한다. 지도방안은 제7차 교육과정 초등 음악과 지도서의 틀을 따르도록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무악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제주 무악의 이론적 개요와 교육적 의의를 조명한다.

둘째, 현행 초등학교에서의 국악교육과정의 방향과 특성 및 영역별 내용을 살피고, 이를 토대로 제주 무악의 초등 국악 가창교재의 내용에 대한 개요를 설정한다.

셋째,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위해 제주 무악의 열두 본풀이 중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를 선택한 이유를 밝히고 이 본풀이들을 선율 추출 방향과 원칙을 설정한 후에 이를 토대로 선율을 추출하여 이를 초등학교 5-6학년의 수준에 맞게 음악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수업안을 개발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를 개발하여 그 지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후에 이 연구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위한 제주 무악은 본풀이 중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셋째, 본 가창교재의 적용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이미 자진모리와 굿거리 장단의 지도가 선행되었다고 보고 지도내용을 구성하

였다. 그러므로 다른 학년에서 지도할 경우 교재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악

굿은 우리 역사에서 전 지역에서 무속신앙의 형태로 나타난 전통적 무의식(巫儀式)으로, 무당의 노래와 춤 그리고 그에 따른 음악 일체를 굿 음악이라 하고, 무속음악 혹은 줄여서 무악이라 부른다.⁴⁾

여기서 사용하는 제주 무악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무당의 노래, 즉 무가에 한정하여 말하도록 하겠다.

2) 본풀이

‘본풀이’의 어의는 글자 그대로 ‘본을 풀다’의 명사형으로 신의 근본을 해설하는 것이다. ‘본’은 근본, 내력, 본원, 본래, 역사 등을 의미하는 말이며, 동사 ‘풀다’는 해설, 해석, 설명 등의 의미가 있다. 동시에 ‘노여움을 풀다’라든가 또는 ‘문제를 풀다’, ‘몸을 풀다’ 등과 같이 화열, 해결, 용해 등의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설명하는 동시에 신을 화열케도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본풀이’는 신의 내력을 풀이하는 기능이 생동하는 ‘신

4) 김혜숙, 백대웅, 최태현, 『전통음악개론』 (서울:어울림, 1995), 86쪽.

화'인 동시에 신을 강림 화열시키는 '주력(呪力)'도 겸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⁵⁾.

그 내용은 본풀이의 주인공인 신의 출생, 성장, 고행, 결혼 등 파란 많은 생활을 그려 나가고 끝에 가서 신으로서의 직능을 차지하여 좌정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간다⁶⁾.

3) 선율

멜로디 또는 가락이라고도 하며, 음악의 3요소 중 음악적인 표현과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로서 갖가지 음높이와 길이를 가진 음을 가로로 결합, 형성하는 음의 선적(線的) 연결이다. 선율은 모든 시대, 모든 민족에게서 볼 수 있는 근원적인 음악현상으로 그 때문에 선율의 유형이나 양식은 갖가지 요소에 의해 규정되고, 시대나 민족에 따라서 극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⁷⁾.

4) 교재화

음악 교육은 제재곡을 통해 교사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교재화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체계에 토대를 두고, 교육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제재곡을 선정, 개발하여 교육용으로 체계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5)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역락, 2001), 43쪽.

6) 현용준,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서울:신구문화사, 1980), 875쪽.

7) <http://www.encyber.com/>(두산세계대백과)

II. 제주 무악 개요

1. 제주 무악의 종류

제주도 굿은 그것을 행하는 기회, 규모,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그 종류를 나눌 수 있다.

굿의 규모에 따라 심방⁸⁾을 데려다 하는 굿과 개인적으로 비는 비넘이 있다. 그리고 굿은 마루 윗벽에 당클(祭棚)을 매는 수에 따라 큰굿을 ‘사당클굿, 중당클굿’이라 하며, 당클은 매지 않고 앉아서 하는 작은 굿을 ‘탁상굿’이라 한다⁹⁾.

굿을 하는 기회에 따라 집안의 구복을 기원하거나 액을 쫓는 일반굿과 마을 전체 행사로써의 당굿으로 나누기도 한다¹⁰⁾.

제주도를 일반적으로 신들의 섬이라 부를 정도로 제주도에는 신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이들 신에 따라 제주 무악을 나눈다.

제주의 굿에서는 수십 종의 무가가 불리며, 모든 굿에서 불리는 무가의 곡 목이 같지 않고 굿의 종류에 따라 더해지고 빠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주의 무가는 ‘본풀이’라 불려진다. 본풀이는 심방에 의해 무가로 전승되어 굿을 하는 과정에서 연희되는 신의 내력담 즉, 신화들이다.

본풀이는 본디 무속에 나타나는 신의 내력담이지만 이것에 주술관념이 첨가됨으로 해서 신의 노여움을 해소시키고, 악신으로부터의 해탈을 꾀하는 반면, 심신의 안정을 초래케 하는 기능이 있다고 믿고 있는 무당의 노래이다¹¹⁾.

제주 무악, 본풀이를 그 내용주제면, 서술형태면, 지리적분포면에서 서로 관

8) 제주에서는 무당을 심방이라 한다.

9) 노재명, 문무병, 장휘주, 『제주도의 무속음악』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13쪽.

10) 위의 책, 8-13쪽.

11)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서울:민속원, 1991), 37쪽.

런시켜 일반신본풀이, 당신본풀이, 조상신본풀이로 분류한다¹²⁾.

일반신본풀이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나 인문사상, 그리고 인간의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12신의 본풀이를 말한다. 일반신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는 신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옥황상제, 삼승할망에서부터 목숨차지의 명부사자인 멩감, 무조신인 초공 삼형제, 농경과 목축의 신인 세경과 테우리 등 많은 신들이 있다. 제주무악의 대표라 일컬어지는 열두본풀이는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삼공본풀이, 세경본풀이, 강님차사본풀이, 문전본풀이, 멩감본풀이, 삼승할망본풀이, 칠성본풀이, 지장본풀이, 영감본풀이를 뜻한다. 이 일반신 열두본풀이는 제주도내 어디서든 제주도 심방이면 누구나 다 알고 부르는 서사 무가로 가락이나 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가창되기는 하지만, 전체가 설화구조를 이루고 있다.

당신본풀이는 마을의 당신(수호신)의 본풀이로 대개 당신이 어떻게 우리 마을에 좌정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내력담이다.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당마다 그 신의 본풀이가 서로 다르며, 당신들이 형제자매, 부자 등의 계보관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조상신본풀이는 가문이나 가업의 수호신을 조상신의 내력담으로, 혈연조상일 수도 있으나, 일정한 계기가 있어서 모시기 시작한 신도 있으며 이 조상신을 ‘일월조상’, ‘군웅일월’ 등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본풀이는 그 집안에서 굿을 할 때 가창된다.

12)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서울:집문당, 1992), 18-19쪽.

2. 제주 무악의 특성

굿의 궁극적 목적은 현세구복이다. 현실적 삶의 고난을 극복, 예방하기 위한 신앙행위로 그 사회가 처한 환경적 차이에 따라 굿의 형식, 신앙대상이나 믿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제주도를 신들의 섬, 무속의 섬이라 한다. 제주도에는 마을마다 1-2개의 당이 있으며 이러한 당은 현재까지도 마을 집단적인 당굿이나 개인의 축원을 비는 굿이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리적 환경의 특이성으로 인해 삶을 위협하는 자연의 힘을 경험하는 빈도수가 많아, 그 불안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여 제주 무악이 타 지역에 비해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 무악에서 가장 형식상으로 큰굿은 4-5명의 심방이 동원되어 4-5일, 심지어는 ‘두 이레 열 나흘’, 즉 14일 간 굿판이 벌어지기도 한다¹³⁾. 이는 완벽하게 굿의 제차(祭次)를 어기지 않고 차례차례 따른 경우로, 현재에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굿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몇몇 제차는 생략하거나 줄여서 연행하고, 굿의 성격에 따라서도 그 전개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제주 무악의 특성을 악기, 선율, 창법, 장단별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¹⁴⁾.

1) 악기

제주도에서는 굿에 사용되는 악기를 ‘연물’이라고 한다.

심방들에 따르면 굿을 할 때 심방의 음성은 옥황상제를 비롯한 각 신령에게

13) 제주도, 『제주도 큰 굿 자료 : 1994년 동김녕 문순실택 중낭쿨굿』(제주,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13쪽.

14) 노재명, 문무병, 장휘주, 앞의 책, 39-46쪽.

청하는 소리이고, 북은 천황궁, 대영(징)은 지황궁, 설쇠는 인황궁, 장구는 지하의 깊은 궁에 갇혀있는 존재들을 궁에 청하는 소리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바람(바라)은 일월 조상을 모실 때 치며, 북소리는 지신에게 알리는 소리이며, 대영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알리기 위한 소리, 설쇠는 심방이 노래와 춤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도 한다.

연물의 종류에는 심방이 굿을 할 때 그 곁에서 소미가 연주하는 징(대영), 설쇠, 북(구덕북), 장구와 심방이 의식을 집행하면서 손에 들고 연주하는 바람(바라), 요령이 있다.

징은 ‘대영’ 또는 ‘대양’이라고도 하는데, 낫으로 만든 둥근 대야 모양의 악기이다. 대영의 둘레에는 끈이 붙어 있어서 손으로 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북, 설쇠와 더불어 주로 심방의 무무(巫舞)를 반주할 때 쓰이지만, 무혼굿에서는 심방이 직접 들고 치기도 한다.

설쇠는 낫으로 만든 밥그릇 모양의 악기로 육지의 쟁과리와 유사하다. 하지만 쟁과리는 징과 같이 왼손에 쟁과리, 오른손에 채를 들고 치지만, 설쇠는 채 위에 얹어놓고 양손에 채를 잡고 친다. 굿에서 설쇠로만 반주하는 경우는 없고, 대영, 북과 함께 주로 춤 반주에 쓰인다.

구덕북은 모양새가 육지의 북과 비슷하지만 연주방식은 전혀 다르다. 제주도 굿에서는 채롱 위에 북을 세로로 비스듬히 올려서 고정시키고, 양손에 북채를 들고 오른쪽 면만 친다.

장구는 육지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오른손으로는 채를 들고 치고, 왼손으로는 손바닥으로 친다. 장구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각종 본풀이 등 서사무가를 부를 때 심방이 직접 장구를 치면서 반주할 때 사용된다.

설쇠, 대영, 구덕북 등이 심방이 굿을 할 때 악사들이 반주하는 악기라면, 바람(바라)과 요령은 심방이 굿을 하면서 들고 연주하는 악기이다. 바람을 사용할 때는 이 악기로 짐을 치기도 한다. 요령은 주로 심방이 제상 앞에서 음

영조로 신을 청하거나 돌려보낼 때 등에 사용하며, 서사무가를 길게 부를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선율

제주 무악의 무가는 신들의 내력을 노래하는 본풀이 등 서사무가들이 많다. 이들 무가는 심방이 장구를 놓고 앉아서 혼자서 부르는데, 선율의 변화가 많지 않고 대체로 단순한 선율을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 많다.

제주도의 무가 선율은 sol, la, do', re', mi'¹⁵⁾의 고른 5음 사용에 sol이나 do'로 종지하는 경토리 음조식과 유사한 선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4음, 6음을 쓰면서 생소한 모습의 선율들이 많다. 경토리로 부르는 무가는 덕담과 서우제소리 등이 있고, 제주도 무가에서 보여지는 토리가 불분명한 선율들은 서사무가를 중심으로 무가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선율은 전체적으로 높이 질렀다가 차츰 낮아지는 하행형 선율이 많고 음역은 거의 한 옥타브를 벗어나지 않으며, 다른 지역의 무가에서처럼 전조(轉調, 조바꿈)를 하거나 음역이 수시로 바뀌는 등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제주도의 무가 선율은 전체적으로 민요처럼 소박하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창법

제주 무가의 창법은 그 사설에 따라, 노랫말이 슬픈 내용이면 우는 창법, 즐거운 내용이면 기쁠 때 부르는 창법을 쓴다.

한편 희노애락의 감정을 표현할 때의 창법 외에도 심방의 숙련도에 따라 배

15) do의 한옥타브 위음은 do', re의 한옥타브 위음은 re', mi의 한옥타브 위음은 mi' 로 표기하였다.

에 힘을 주고 통성으로 소리를 길게 뻗어내는 길게 빼는 소리와, 선율에 잔가락을 많이 넣어서 목을 돌리는 목에서만 굴리는 창법 등이 있다. 이러한 창법은 사람마다 하는 형태가 약간씩 다르기도 하지만, 자신만의 창법을 새롭게 개발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적게 빼는 말, 궁글려서 빼는 말 등이 있다.

4) 장단

제주 무악에서는 장단 명칭을 따로 쓰지 않는다.

제주 무가를 반주할 때는 간단한 몇 가지 박자 유형으로만 반주를 하는데 가장 흔히 나타나는 유형은 3소박 2박(6/8) 형이고, 다음은 음영에 가깝게 자유리듬으로 부르는 형이며, 마지막으로 추물공연이나 새드림을 할 때의 3소박 4박 형이다. 이 외에도 드물긴 하지만 2소박 4박 형의 무가 장단도 있다.

3소박 2박 형으로 부르는 무가는 대부분 서사무가이다. 배포도엮 치는 무가, 날과 국 섬기는 소리, 연유 닦는 소리가 모두 3소박 2박 형이고 이 밖에도 본풀이 무가가 거의 여기에 해당된다. 무가는 3소박 한 박에 세 음절이 주로 들어가고, 3소박 2박 형으로 부르는 무가는 대개 심방이 장구를 직접 치면서 연주하는 특징이 있다.

3소박 4박 한 장단으로 부르는 무가에는 덕담, 서우제소리, 영가(靈駕) 질치는(길 닦는) 무가, 새드리는 소리가 있다. 3소박 4박 한 장단으로 부르는 무가는 주로 장구와 구덕북의 반주가 따른다. 무가를 부르는 심방은 서서 소리를 하고 장구와 구덕북을 연주하는 악사들은 반주도 하고 뒷소리도 받는다. 그리고 영가 질치는 소리(방광질하는 소리)와 용왕문 여는 소리에서는 심방이 징을 치면서 부른다.

자유리듬으로 부르는 무가는 대개 심방이 서서 요령을 흔들면서 부르는 모든 종류의 무가가 이에 해당된다. 자유리듬으로 부르는 무가의 특징은 말을

음영하는 것에 가깝게 부르기 때문에 박자 또한 매우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난다.

무가에서 2소박으로 부르는 음악에는 새드림과 군문 여는 소리가 있다.

새드리는 앞부분은 3소박 4박으로 부르다가 뒷부분에서 박자가 2소박 4박형으로 바뀐다. 2소박 4박으로 부르는 무가는 그 템포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다.

3. 제주 무악의 교육적 의의

제주 무악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교육에서 배우게 되는 국악곡은 대부분 전래동요, 민요, 창작국악동요로, 풍물놀이를 제외하고는 굿 음악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제주 무악을 통해 국악의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배척당하고 무시당해온 무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

둘째, 현 7차 교육과정에는 음악과 생활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단원이 놀이, 춤, 여가, 의식과 관련하여 각 학년마다 제시되어 있다. 제주 무악을 통해 음악과 종교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무악은 고대부터 행해진 전통적 무의식(巫儀式)에 사용된 음악으로 그 지역의 사상의 근원을 이룬다. 즉, 제주 무악 속에서 제주도민의 인생관, 세계관, 생활관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삼공본풀이에서 가문장아기는 가부장 문화를 벗어나 경제적인 능력을 비롯한 자신의 능력을 성취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에 매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제주 여성들의 원형이다¹⁶⁾.

16) 하효길 외, 『한국의 굿』 (서울:민속원, 2002), 323쪽.

넷째, 제주 무악 중, 특히 일반본풀이는 내용적으로 천지창조 신화, 영웅신화, 재해 신화 등 세계 신화들의 보편적인 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신화가 담긴 서사 노래로 배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문학적 교육까지 가능하며, 음악극으로 표현함으로써 창의성과 음악적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제주 무악 선율의 특징은 변형이 거의 없이 단순한 가락의 반복이며 음 높낮이의 변화가 한 옥타브 내이다. 감상하기에는 맛있게 지루할 수도 있지만, 가창교육을 하기에는 같은 선율이 반복되므로 쉽게 배울 수 있고, 음 높이에 대한 부담감 없이 편하게 부를 수 있다. 장단 또한 간단해서 노래 부르면서 편하게 장단을 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 무악을 배움으로써, 제주도 내의 음악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발전시킬 수 있다. 아직 제주도의 음악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연구되어 있지 않다. 제주 무악을 통해 사람들이 제주의 음악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제주의 음악을 보존 및 재창조하고, 관련 이론이 정립되는 등 제주 음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Ⅲ. 초등 국악 교육과정 개요

1. 초등 국악 교육의 방향과 특성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정보화, 세계화, 다양화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해 국악교육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학교에서의 음악 교육은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달, 발전, 그리고 계승시킬 수 있는 학생을 길러 낼 수 있는 음악 교육으로 발전되도록 하였다¹⁷⁾.

초등학교에서 국악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어를 배우기에 앞서 우리말을 익혀야 하듯이, 서양음악 교육에 앞서 우리음악의 교육을 중요시 하여야 어린이들이 주체성과 자주성을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음악 교육에 있어서 사명적인 가지는 그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를 계승 하는 일이다¹⁸⁾. 따라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다양한 방법으로 국악을 익히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미래의 한국음악을 창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나아가 세계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음악 교육의 중요한 사명이다.

국악교육을 강조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전통음악은 국악계 이외의 분야에서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국악교육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국악교육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국악강사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정책적으로 국악강사포제를 실시하여 요청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다. 각 학교에서도 국악교육에 필요한 시설, 악기, 자료 등을 점차 구비하고 있는 추세이며, 국악 관련 연수 및 연구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악교육에 대한 관심 및 연구가 ‘장구, 소금, 단소 등 악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룰 수 있는가’와 ‘교과서 내의 국악과 관련된 제재곡

17)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4』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7쪽.

18) 이용일, 『음악 교육 해설』 (서울:현대악보출판사, 1982), 278쪽.

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것인가’하는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국악 분야의 교육적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2. 초등 국악 교육의 영역별 내용

제7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음악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에게는 <즐거운 생활>이라는 통합교과 안에서 다른 과목과 함께 통합적으로 지도하다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음악’이라는 교과목 안에서 본격적으로 음악교육이 실시된다.

3-6학년의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으며, 활동 영역 이하에 가창, 기악, 창작, 감상의 네 가지 하위 영역이 제시되고 있다.

초등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국악 교육과 관련된 이해 영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 교육 관련 이해 영역 내용¹⁹⁾

학년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해	리듬 ·자진모리장단 ·리듬꼴	·세마치장단 ·리듬꼴	·긫거리장단 ·변형 장단 ·여러 가지 박자와 장단의 리듬꼴
가락	·가락의 흐름 ·민요 음계 ·시김새	·가락의 흐름 ·민요 음계 ·시김새	·가락의 구성 ·민요 음계 ·시김새	·가락의 구성 ·민요 음계 ·시김새	
형	·같은 가락/다른	·같은 가락/다른	·비슷한 가락	·비슷한 가락	

19) 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책, 15쪽.

식	가락 ·메기고 받기 ·동요/전래 동요/ 민요 등의 성악 곡 춤곡의 기악 곡	가락 ·메기고 받기 ·동요/전래 동요/ 민요 등의 성악 곡, 사물놀이/행 진곡 등의 기악 곡	·메기고 받기 ·민요/합창곡 등 의 성악곡, 대취 타/관현악곡 등 의 기악곡	·메기고 받기 ·오페라/판소리 등의 성악곡, 취 타/교향악곡 등 의 기악곡
셈 여 림	·세계, 여리게	·세계, 여리게	·점점 세계, 점 점 여리게	·점점 세계, 점 점 여리게
빠 르 기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느리게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음 색	·다양한 음원에 의한 소리 ·남녀의 목소리 ·타악기/관악기 의 소리 ·연주 형태(독창, 제창, 돌림노래, 타악 합주 등)에 따른 소리의 조 화	·다양한 음원에 의한 소리 ·개인과 모듬의 목소리 ·현악기의 소리 ·연주 형태(합창, 관악 합주 등)에 따른 소리의 조 화	·다양한 음원에 의한 소리 변화 ·음역에 따른 목 소리 ·목관/금관 악기 소리 ·연주 형태(중창, 독주, 병주, 현 악 합주 등)에 따른 소리의 조 화	·다양한 음원에 의한 소리 변화 ·음역에 따른 목 소리 ·건반 악기 ·연주 형태(중주, 관현악 등)에 따 른 소리의 조화

이해 영역의 국악 관련 내용은 서양음악에 비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는 국악의 이론이 서양의 그것에 비해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활동 영역의 내용은 우리음악과 서양음악의 구별 없이 제시하고 있으며, 다 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창을 중점적으로 하여 배우게 되나, 이는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더 익숙하게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3가지 영역의 활동 내용까지 덧붙여 적어보았다.

<표 2>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 국악 교육 관련 활동 영역 내용²⁰⁾

영역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활동	가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호흡으로 부른다. ·악곡을 듣고 따라 부른다. ·리듬과 가락의 흐름을 이해하여 부른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른다. ·간단한 노래를 외어 부른다. ·노래를 듣고 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호흡으로 부른다. ·악곡을 듣고 따라 부른다. ·리듬과 가락의 흐름을 이해하여 보고 부른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부른다. ·간단한 노래를 외어 부른다. ·노래를 듣고 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부른다. ·악곡을 듣고 부른다. ·기초적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른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부른다. ·노래를 외어 부른다. ·다양한 문화권의 곡을 부른다. ·노래를 듣고 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호흡, 정확한 발음,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부른다. ·악곡을 듣고 부른다. ·기초적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부른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부른다. ·노래를 외어 부른다. ·다양한 문화권의 곡을 부른다. ·노래를 듣고 평한다.
	기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연주한다. ·리듬과 가락의 흐름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연주한다. ·리듬 악기로 반주한다. ·연주를 듣고 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연주한다. ·리듬과 가락의 흐름을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한다. ·연주를 듣고 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기초적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한다. ·간단한 곡을 외어 연주한다. ·연주를 듣고 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 주법, 좋은 음색으로 연주한다. ·기초적인 음악의 요소를 이해하여 보고 연주한다. ·악곡의 특징을 살려 표현력 있게 연주한다. ·간단한 곡을 외어 연주한다. ·연주를 듣고 평한다.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리듬꼴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노래의 가사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짧은 리듬꼴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노래의 가사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배운 곡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한 리듬과 가락을 만들어 즉흥 연주한다. ·배운 곡을 변화

20) 교육인적자원부, 위의 책, 16-17쪽.

	<p>바꾸어 부른다. ·짧은 가락을 만들어 적는다. ·2음,3음으로 구성된 전통 가락을 만든다. ·주위 환경의 소리, 목소리, 악기 소리 등을 활용하여 음악을 표현한다. ·만든 곡을 발표한다. ·만든 곡을 듣고 평한다.</p>	<p>바꾸어 부른다. ·짧은 가락을 만들어 적는다. ·2음, 3음으로 구성된 전통 가락을 만든다. ·주위 환경의 소리, 목소리, 악기 소리 등을 활용하여 음악을 표현한다. ·만든 곡을 발표한다. ·만든 곡을 듣고 평한다.</p>	<p>시킨다. ·간단한 곡을 만들어 적는다. ·4음으로 구성된 전통 가락을 만든다. ·다양한 음원, 목소리, 악기 소리 등을 선택하여 음악을 표현한다. ·만든 곡을 발표한다. ·만든 곡을 듣고 평한다.</p>	<p>시킨다. ·간단한 곡을 만들어 적는다. ·5음으로 구성된 전통 가락을 만든다. ·다양한 음원, 목소리, 악기 소리를 선택하여 음악을 표현한다. ·만든 곡을 발표한다. ·만든 곡을 듣고 평한다.</p>
감상	<p>·악곡의 특징을 구별하며 듣는다. ·간단한 악곡의 음악 형식을 구별하며 듣는다. ·악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타악기, 관악기 소리와 남녀의 목소리를 구별하며 듣는다. ·독창, 제창, 합창, 타악 합주 등의 여러 연주 형태의 악곡을 듣는다. ·동요, 전래 동요, 민요 등 성악곡과 춤곡의 기악곡을 듣는다. ·생활(놀이)에서의 음악의 활용을 안다. ·음악을 듣고 느낌을 말한다.</p>	<p>·악곡의 특징을 구별하며 듣는다. ·간단한 악곡의 음악 형식을 구별하며 듣는다. ·악곡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현악기 소리와 개인과 모듬의 목소리를 구별하며 듣는다. ·합창, 관악 합주 등의 여러 형태의 악곡을 듣는다. ·동요, 전래 동요, 민요 등 성악곡과 사물놀이, 행진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생활(춤)에서의 음악의 활용을 안다. ·음악을 듣고 느낌을 말한다.</p>	<p>·악곡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이해하여 듣는다. ·다양한 악곡의 음악 형식을 구별하며 듣는다.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목관, 금관 악기 소리와 음역에 따른 목소리를 구별하며 듣는다. ·중창, 독주, 병주, 현악 합주 등의 여러 연주 형태의 악곡을 구별하며 듣는다. ·동요, 민요, 합창곡 등 성악곡과 대취타, 관현악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생활(여가)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한다.</p>	<p>·악곡의 구성 요소와 특징을 이해하여 듣는다. ·다양한 악곡의 음악 형식을 구별하며 듣는다. ·악곡의 특징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을 한다. ·건반 악기와 음역에 따른 목소리를 구별하며 듣는다. ·중주, 관현악 등의 여러 연주 형태의 악곡을 구별하며 듣는다. ·오페라, 판소리 등의 성악곡과 취타, 교향곡 등의 기악곡을 듣는다. ·생활(의식)에서의 음악의 역할을 이해한다. ·음악을 듣고 토의한다.</p>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음악을 듣고 토의한다.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바른 감상 태도를 가진다.
--	--	-----------------	-----------------	----------------------------------	-----------------

이해 영역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과 같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습득되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영역별 내용만 보았을 때, 어떠한 학습 내용을 어떠한 활동을 통해 배우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연관성 있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국악 제재곡 중 가창과 관련한 제재곡의 학습 내용 및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국악 가창 제재곡의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²¹⁾

학년	제재	차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3	참새 노래	1	·장단의 기본박 ·가사 바꾸어 부르기	-주고받으며 노래부르기 -자진모리 장단의 기본박 치며 노래부르기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
		2	·가락의 흐름 ·돌림 노래	-가락의 흐름을 알고 노래부르기 -돌림 노래 부르기
	실구대 소리 감상<일과 음악>	1	·장단	-듣고부르기 -자진모리 장단 치며 노래부르기
		2	·빠르기	-빠르기를 달리하여 부르기 -놀이하며 노래부르기
		3	·감상 <명주 모내기 소리> ·음악의 역할	-일노래의 특징 이해하기
	메롱이	1	·리듬꼴	-리듬꼴 익혀 노래부르기

21)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3』(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38-41쪽.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4』(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38-41쪽.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5』(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41-45쪽.

교육인적자원부, 『초등학교 교사용 지도서 음악 6』(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41-45쪽.

	소리 감상<숲>	2	·가락 창작	-가락의 흐름을 신체 표현하며 노래부르기 -3음으로 가락짓기
		3	·감상 <숲>	-자연을 표현한 음악듣기 -가야금 음색 구별하기
	청어엮자	1	·자진모리 장단	-듣고 따라 부르기 -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2	·놀이하기	-악곡의 특징 살려 노래부르기 -‘청어 엮자’ 놀이하기
	아리랑	1	·세마치 장단 ·자연스러운 발성	-세마치 장단의 기본박 치기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노래부르기
		2	·여러 지방의 아리랑	-아리랑에 어울리는 신체 표현하기 -여러 지방의 아리랑 듣기
3		·관악기 음색	-관악기의 음색 및 특징 이해하기	
4	나물 노래	1	·자진모리 장단 ·12/8박자 리듬꼴	-자진모리 장단을 치며 노래부르기 -12/8박자 리듬꼴 이해하고 치기
		2	·가사 창작 ·체재곡의 음구성 ·가락 창작	-가사를 지어 적기 -체재곡의 구성음과 가락의 흐름알기 -가락 창작하기
	도라지타령	1	·세마치 장단 ·자연스러운 발성	-장단치며 노래부르기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노래부르기
		2	·민요에 맞는 신체표현	-체재곡에 맞추어 걷기 -체재곡에 어울리는 춤 동작 만들기
	천안 삼거리 감상<가야금 병창 새타령>	1	·시김새	-시김새 살려 부르기 -전문가의 창을 듣고 비교하기
		2	·굿거리 장단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굿거리 장단의 민요 듣기
		3	·감상 <새타령>	-가야금 병창의 특징 알기 -노래와 가야금의 어울림 느끼기
	그네	1	·가락의 흐름 ·악곡의 분위기	-악곡의 특징 살려 노래부르기
		2	·장단 ·감상‘호랑장군’,‘산도깨비’	-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창작 국악 동요의 특징을 알고 감상하기
	강강술래	1	·시김새 ·빠르기 변화	-시김새 살려 노래부르기 -메기고 받으며 부르기 -빠르기 변화에 따른 악곡의 특징 파악하기
		2	·강강술래놀이	-강강술래 노래하며 놀이하기
	뒷산에 올라	1	·점음표가 있는 리듬꼴	-점음표 리듬꼴을 정확하게 치기 -리듬 반주하며 노래부르기
		2	·리듬 즉흥 연주	-간단한 리듬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 -전주, 후주 리듬 창작하기

새노래	1	·제재곡의 음구성	-제재곡의 음 구성을 이해하기
	2	·가락 창작	-3음으로 가락짓기
금다래꿈 감상(우리 나라 북부 지방의 전래 동요)	1	·시김새	-가락선을 보며 시김새를 살려 부르기
	2	·전래 동요	-전래 동요를 듣고 부르기
고사리 껌자	1	·시김새 ·놀이와 노래	-시김새 살려 노래부르기 -놀이하며 노래부르기
	2	·단소 불기	-단소의 소리내기 -‘태’소리 내기
떡 노래 감상<대취 타>	1	·자진모리 장단	-자진모리 장단 치며 노래부르기 -변형된 자진모리 장단 치기 -조상들의 생활 모습 이해하고 노래부 르기
	2	·감상 <대취타> ·음색	-곡의 특징 알기 -악기의 음색 구별하기
봄이 가고 여름 오면	1	·자진모리 장단 ·셈여림	-느린 자진모리 장단 치며 노래부르기 -가락의 흐름에 따라 셈여림 표현하기
	2	·빠르기 ·가사 창작	-빠르기를 변화시켜 노래부르기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
	3	·단소 연주	-‘태’,‘황’,‘무’ 소리내고 연습하기
5 아침 해	1	·같은/비슷한/다른 가 락 ·긋거리 장단	-같은/비슷한/다른 가락을 알고 노래부 르기 -긋거리 장단 치기 -긋거리 장단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2	·단소 연주	-태, 황, 무, 임, 중 운지법을 알고 연주하 기 -제재곡을 연주하기
	3	·가락 창작	-간단한 가락 창작하기 -만든 곡을 연주하기
맑은 물 흘러가니	1	·6/8박자 리듬 ·시김새	-6/8박자의 리듬치기 -시김새를 살려 노래부르기
	2	·리듬놀이 ·전주와 후주	-6/8박자 리듬놀이하기 -전주와 후주 만들어 연주하기
넝리리야	1	·시김새	-장단에 맞추어 듣고 부르기 -시김새를 살려 흥겹게 부르기
	2	·긋거리 장단	-긋거리 장단 치기 -장단을 치며 노래부르기
	3	·단소 연주	-단소로 국악 동요 연주하기
떨치 잡는 노래	1	·메기고 받는 소리	-메기고 받으며 노래하기 -장단을 살려 노래하기
	2	·노래의 빠르기와 일	-노래의 빠르기를 달리하여 노래부르기

		과의 관계 ·감상 '제주도 향토 민요'	-향토 민요의 특징을 살려 노래부르기
	3	·여러 지방의 민요	-지방별 민요를 감상하고 특징 알기
	방패연 감상<시나위>	1 ·굿거리 장단	-장단을 치며 제재곡 부르기 -자연스러운 발성으로 외어 부르기
	2	·리듬 창작	-리듬 만들어 즉흥 연주하기
	3	·감상 <시나위> ·음계 ·연주 방식	-악기 음색 구별하기 -연주 방식 이해하기
6	동당기타 령 감상<산조>	1 ·메기고 받는 소리 ·가락의 구성음 ·시김새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르기 -가락의 구성음 알고 시김새 표현하며 노래부르기
	2	·중중모리 장단 ·가사 창작	-중중모리 장단을 치며 노래부르기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
	3	·감상 <해금 산조>, <대금 산조>, <가야금 산조> ·악기 음색	-산조의 특징 이해하기 -악기 음색 구별하기
	개구리 소리	1 ·굿거리 장단	-제재곡 듣고 부르기 -굿거리 장단을 치면서 노래부르기
	2	·오스티나토 ·단소 주법	-오스티나토 반주하기 -같은 음을 반복하는 주법 익히기
	3	·단소 연주	-'개구리 소리' 단소로 연주하기
	끼리끼리 감상<수제천>	1 ·6/8박자 리듬꼴 ·셈여림	-6/8박자 리듬꼴 치기 -셈여림 살려 노래부르기
	2	·리듬 창작 ·전주, 후주	-6/8박자 리듬꼴 지어 정간보에 적기 -전주와 후주 넣어 연주하기
	3	·감상 <수제천>	-<수제천>과 <시나위>의 특징 알기 -<수제천>과 <시나위>를 듣고 비교하기
	싸름 감상<수심가>	1 ·시김새	-제재곡 듣고 따라부르기 -시김새를 듣고 따라부르기
	2	·감상 <수심가> ·서도 민요의 특징	-서도 민요의 특징 알기 -남도 민요와 비교하여 감상하기
	거문도 뱃노래	1 ·시김새 ·장단	-시김새를 살려 장단 치며 노래부르기 -일과 음악의 관계 알기
	2	·단소 연주	-울명으로 노래부르기 -단소 연주하기
	3	·단소 연주	-단소 연주하기 -연주하고 평하기
	풍년가	1 ·시김새	-시김새 살려 노래부르기
	2	·굿거리 장단	-굿거리 장단 치기
	3	·감상 <청성자진한>	-가락선 나타내기

		·음색	-음색을 구별하며 듣기
쾌지나 칭칭 나네	1	·메기고 받는 소리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르기
	2	·장단의 변화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장구치기 -곡에 알맞은 장단의 변화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3	·가사 창작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 -모듬별로 발표하기

국악 가창 제재곡을 통해 노래 익히기 활동만이 아닌, 기악 연주, 가락 창작, 장단 치기, 메기고 받기 등 가창 외의 기악, 창작, 감상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래만 잘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닌, 그 제재곡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요소를 함께 지도하여 보다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래를 배운다고 하여 노래 익히기에만 힘쓴다면 지루한 수업이 될 수 있으므로, 노래를 듣고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좀 더 노래를 잘 익힐 수 있도록 가창 이외의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3. 초등 국악 가창 교재의 내용 개요

제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는 다양한 악곡과 음악활동을 통하여 음악성과 창의성을 기르고, 음악적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²²⁾.

가창활동은 음악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음악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의 음악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가창은 가장 수월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22) 교육인적자원부, 앞의 책, 10쪽.

노래로 표현하며 미적 체험을 하고, 음악적 개념을 형성하여 자신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음악활동이다²³⁾.

특히, 국악가창교육이 학교교육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²⁴⁾.

첫째, 한국음악에서 가창 부분은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일정 기간의 연습이 반드시 필요한 기악 영역에 비해 가창 영역은 우선 간단하게 따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가능하다. 쉬운 노래를 지도하고, 그 노래의 맛을 느끼게 해 준다면 학생들은 국악이 어렵다는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이 국악적인 노래들을 가까이 접하게 될 때 그들의 삶에서 ‘국악의 생활화’는 실현될 것이다.

둘째, 가창 영역의 지도에 있어서, 빠르기를 달리해서 부른다거나, 가사를 바꾸어 부른다거나, 가락을 바꾸어 부르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 음악성을 키워 줄 수 있다.

셋째, 국악에서 중요한 개념을 가창 활동을 통하여 지도할 수 있다. 예컨대 메기고 받는 방식, 음계, 시김새, 장단, 음높이, 다양한 리듬, 노래와 생활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음악적 개념들을 노래 부르는 활동과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

국악교육은 현재 굉장히 강조되고 많은 지도방안과 교재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국악기의 기능 습득과 효율적인 국악 교육과정 지도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국악 교육과정 내에는 민요, 전래동요, 국악창작동요만 가창곡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통속민요들로 지역적 특색에 의한 국악교육과 민요, 전래동요, 국악창작동요 이외의 분야에 대한 국악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교재는 제주 무악 중 대표적인 일반신본풀이 12가지 중 천지왕본풀이, 멩감본풀이, 영감본풀이 3가지를 초등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악곡으로 변화시

23) 위의 책, 19쪽.

24) 권덕원, 「국악가창교육 내용체계화 연구」,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가창편』(서울:국립국악원, 2001), 9쪽.

켜 국악가창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교재는 쉬운 노래로써 ‘국악의 생활화’의 실현에 기여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도방법을 고안하여 창의적 음악성을 키워주며, 국악에서 중요한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전통적인 무악의 노래를 전승하면서 전통위에 새로움을 더하는 창조적 발전의 의미도 들어있다.

제주 무악은 제주의 생활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독자적 문화 형성에 기여해 왔다. 특히 본풀이는 신의 이야기, 즉 신화가 들어있다. 이를 지도함으로써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무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 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래동요, 민요 외의 다양한 국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제주도 내에서는 민족문화의 보편성과 지역문화의 특수성이 내재해 있는 본풀이의 신화 및 선율, 사투리 등을 통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수용하고 재창조하는 문화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한다.

본 국악가창교재는 제주 무악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주 무악의 선율을 추출, 간단히 구성하여 제주 무악이 주는 느낌을 음미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요소를 함께 지도하여 보다 더 의미 있는 학습을 이루고자 한다.

IV.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1. 초등교재 개발을 위한 선율 추출

1) 선율 추출 방향과 원칙

일반신 열두본풀이는 제주의 곳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본풀이로 제주의 어떤 심방이든 부를 수 있는 본풀이이다. 이는 특정한 당에서만 불려지는 당신본풀이나, 한 집안에서만 불리는 조상신본풀이에 비해 제주무악을 대표할 수 있는 본풀이이다.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위해 제주 무악 선율을 추출하기에 앞서, 그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제주 무악의 열두본풀이의 음악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²⁵⁾.

<표 4> 초등가창교재 개발 대상의 음악구조 분석

본풀이 종류	음악구조
천지왕본풀이	-6/8박자의 2-8마디 단락 ²⁶⁾ 의 가락 -6/8박자 군웅덕담풀이
초공본풀이	-가락말명 ²⁷⁾ -6/8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굿거리풍

25)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열두본풀이의 음악구조를 분석해보았다.

국립국악원, KBS, 「한국의 굿 NO.4-제주 칠머리당굿」 CD (서울:국악춘추사,서울음반, 2000).

조영배, 「칠머리 당굿의 음악적 특징」,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 (서울:국립국악원, 2000).

조영배, 「악보」,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 (서울:국립국악원, 2000).

	-낭창말명 ²⁸⁾ -6/8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자진모리풍
이공본풀이	-6/8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
삼공본풀이	-2/4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 -가락말명 -군옹덕담풀이류
세경본풀이	-6/8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 -가락말명(길이가 긴 편, 다수) -2/4박+3/4박(혼합박) 2-6마디 단락의 가락(비대칭적 단락) -2/4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
강님차사본풀이	-6/8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 -가락말명 -낭창말명(자주 삽입) -2/4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헤미올라 현상)
맹감본풀이	-무반주의 자유리듬 선율-규칙적 자유정형리듬 -불규칙적 자유정형리듬
지장본풀이	-6/8박자 2마디의 메기고 받는 형식(받는 소리-모방창) -선창자에 의한 의도적 헤테로포니 현상
문전본풀이	-가락말명 -6/8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 -4/4박+2/4박(혼합박) 2-6마디 단락의 가락(비대칭적 단락)
칠성본풀이	-6/8박자 2-8마디 단락의 가락
삼승할망본풀이	-무반주의 자유리듬 선율
영감본풀이	-6/8박자 4마디의 메기고 받는 형식(후렴반복) -진서우제(굿거리풍) → 자진서우제(자진모리풍)

본 연구자는 열두본풀이를 음악구조의 유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분류하여 보았다.

첫째, 열두본풀이 중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 문전본풀이, 칠

26) 선율을 노래할 때는 장구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치다가 단락이 끝나면, 단락이 확실히 구분되도록 장구장단을 크게 친다. 마디 구분은 이 장단을 통한 단락의 구분에 기준하였다. 이는 마지막 한마디 전체를 장단을 치면서 쉬고 넘어가는 경우와, 마지막 마디의 첫 박까지 부르고 둘째 박에서 장단을 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간혹 뒤에 한 두 마디를 더 쳐주기도 한다.

27) 심방이 곳에서 하는 말을 ‘말명’이라 한다.

28) 특정한 리듬, 가락없이 말하듯이 읊조리며 부르는 악구를 ‘낭창말명’이라 한다.

성본풀이, 세경본풀이, 강림차사본풀이 등 대부분의 본풀이가 천지왕본풀이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2-8마디의 단락으로 된 선율이 변형·반복되며, 반음교차현상에 의한 변조 현상, 장구장단, 창법, 시김새, 처음에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빨라지는 속도의 변화까지 비슷하다. 삼공본풀이는 처음부터 2/4박자로 시작되는 점이 다르나, 2-8마디 단락의 가락을 변형·반복하는 점은 같으며, 천지왕본풀이류의 다른 본풀이들이 뒷부분에서 빨라진 부분과 비슷하여 이 분류에 넣을 수 있다.

둘째, 메기고 받는 형식의 본풀이로는 지장본풀이와 영감본풀이가 있다. 지장본풀이는 2마디이나, 선창의 1마디 뒤에 바로 후창자가 받는 형식이고, 영감본풀이는 4마디씩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형식은 같으나 조금 다르다.

셋째, 일정한 박자 없이 자유리듬의 선율로 무반주로 부르는 본풀이는 멩감본풀이와 삼승할망본풀이가 있다.

이 세 가지 분류에서 각각 음악구조의 차이가 확연하고 가락이 뚜렷한 본풀이를 뽑아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대상을 제한하고자 한다.

2-8마디 단락의 가락을 변형·반복하는 형식에서는 천지왕본풀이, 무반주의 자유리듬 선율은 멩감본풀이, 메기고 받는 형식에서는 영감본풀이, 이 3가지 본풀이만으로 초등가창교재 개발의 대상을 제한하였다.

초등가창교재 개발의 대상인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에서 선율을 추출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첫째, 본풀이 자체 선율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여 추출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악곡들의 대부분은 4마디의 작은악절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제주 무악에서는 불규칙적으로 마디 나눔이 일어나기도 하고, 2마디, 3마디로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있다. 이를 굳이 4마디로 정형화시키기보다 원래의 구조를 유지하고자 한다. 단, 자유리듬인 멩감본풀이는 정형화가 가능하므로 이를 정형화시켜 마디를 나누도록 하겠다.

둘째,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도록 추출한다. 우선 학습자가 너무 많은 선율을 배우게 되면 즐겁기 보다는 어렵고 질리게 된다. 그러므로 2-3개 정도의 주요 선율을 추출하고 가사를 붙여 같은 선율에 가사를 바꿔 부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음역이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 학습자의 음역에 맞게 조옮김한다. 이는 제주 무악 선율의 특징 상 음역이 거의 한 옥타브 이내이기 때문에 굳이 조옮김해야하는 문제는 없으리라 본다. 가락변조²⁹⁾ 등과 같은 음악이론은 학습자의 수준에 어려운 개념이므로 지도 내용에서 제외한다.

셋째, 추출한 선율에 가사를 붙이는 작업은 원래 가사의 느낌을 되도록 살리되, 적절히 학습자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투리를 넣어 자연스런 제주어 교육도 가능하도록 한다. 사투리인 경우, 각주를 달아 누구든 보기 쉽도록 하겠다. 가사의 내용은 본풀이 전체의 내용을 담거나 특징적인 부분의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

2) 제주 무악의 가창 교재용 선율 추출³⁰⁾

(1) 천지왕본풀이의 선율 추출

천지왕본풀이는 6/8박자의 가락이 전개된다. 이 박자는 2가지로 다른 유형을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유사한 가락이 변형·반복되고 있으나, 군웅덕담풀이는 장단과 선율의 유형이 다른 6/8박자의 가락이 전개된다.

29) 예를 들어, 영감본풀이에서는 선창자의 의도에 의해 종지음이 C음이 아닌, F음으로 종지하면, 완전 4도 올린 상태로 계속 노래를 부르게 된다(다장조 →바장조).

30)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위해 추출한 제주 무악의 선율은 국립국악원, KBS에서 나온 「한국의 굿 NO.4 -제주 칠머리당굿」 CD(서울:국악춘추사,서울음반, 2000)자료와 위 녹음자료를 채록한 국립국악원에서 나온 『한국음악 제31집-한국의 굿-제주도 칠머리당굿』 내의 악보를 토대로 하였다.

천지왕본풀이의 덕담풀이를 제외한 부분은, 장단가락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마디를 나누었을 때, 2(1+1)³¹마디부터 8(7+1)마디의 단락의 가락이 변형·반복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음계는 <do-re-mi-sol>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8마디로 된 선율을 노래할 때는 장구 장단을 ‘♪♪♪♪’로 들릴 듯 말들 치다가 노래부르는 단락이 끝나면 장구 장단을 크게 ‘♪♪♪♪’이나 ‘--♪♪’이라 쳐서 단락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장단을 친다. 선율의 단락구분은 규칙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등장한다.

이 부분의 선율은 4,5,6마디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이 마디의 주요선율을 추출하는데, 각각 ‘3+1’, ‘4+1’, ‘5+1’마디로 표현하였다. 가락은 비슷한 가락이 조금씩 변형되어 불러지고 있고, 반음교차에 의한 변조현상에 의해 조바꿈되어 불리는데, 조가 다른 선율을 같이 쓸 수 없으므로 동일 조성 내에서 추출해내었다.

추출해 낸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 천지왕본풀이 (4+1)마디의 주요선율³²⁾ <천지왕 선율 1>



31) 이 부분의 선율은 단락을 나눌 때 마지막 끝나는 마디는 장단을 치는 형식으로 되어있어, 3마디의 선율은 2마디는 노래를 부르고 마지막 한 마디는 장단을 치는 마디이다. 즉, 2(1+1)은 2마디의 단락의 선율은 앞의 1마디는 노래를 부르고 2번째 마디는 장구 장단을 치며 쉬게 되므로, 이를 ‘1+1’이라 표현한 것이다.

32) 조영배, 「악보」, 『한국음악(제31집)-제주도 칠머리당굿』 (서울:국립국악원,2000), 181쪽.

<악보 2> 천지왕본풀이 (3+1)마디의 주요선율³³⁾ <천지왕 선율 2>



<악보 3> 천지왕본풀이 (5+1)마디의 주요선율³⁴⁾ <천지왕 선율 3>



군웅덕담풀이는 2-8마디의 단락으로 나뉘는 선율의 부분과 달리, 거의 대부분 4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간혹 5마디이다. 곳거리 장단이나 중중모리 장단과도 어울린다. 심방이 혼자서 군웅덕담풀이를 부르는 것을 옆에서 ‘좋다’ 등의 추임새를 해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메기고 받는 소리를 혼자 다 부르는 것처럼 2-3종류의 선율을 변형·반복하여 부르고 있으므로, 이것을 교실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과 함께 부른다면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

군웅덕담풀이를 4마디의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변환하여 추출한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4> 군웅덕담풀이 후렴 선율³⁵⁾ <천지왕 선율 4>



33) 위의 책, 179쪽.

34) 위의 책, 185쪽.

35) 위의 책, 200쪽.

<악보 5> 균웅덕담풀이 선소리 선율 a³⁶⁾ <천지왕 선율 5>



<악보 6> 균웅덕담풀이 선소리 선율 b(※후렴과 동일) <천지왕 선율 6>



추출한 선율에 가사를 붙여 다음과 같이 악보화 해보았다. 가사는 대별왕 소별왕이 아버지 천지왕을 만나 이승법과 저승법을 마련하여 다스리라는 명을 받았는데, 서로 이승을 차지하고자 다투어 수수께끼와 꽃가꾸기 등의 내기로 정하기로 하여 소별왕이 그의 꾀로 대별왕을 이겨 이승을 다스리게 되었으나, 세상이 여전히 어지러워 다스리기가 어려워서 대별왕의 도움을 얻고 세상을 질서가 바로잡힌 부분의 내용을 원래 가사를 기초로 하여 가사를 만들어보았다.

<표 5> 천지왕본풀이의 가사모음

-천지왕본풀이(대별왕 소별왕)-
 <천지왕 선율 1>

1. 먼 저난건 대 - 별 왕 말 제난-결 랑 소 - 별- 왕 - ----
 5. 수 치적적 이긴스 립 마 음대-로 - 마 련협- 씨 - ----
 9. 잠 자기- 내기하 여 소 별왕-이 가 꽃 바꾸- 어 - ----
 11. 소 별왕은 이 - 싱 법 세 상천-하 를 굽 어보- 니 - ----
 13. 소 별왕- 겁이나 서 대 - 별-왕 의 도 움받- 아 - ----

36) 위의 책, 200쪽.

<천지왕 선율 2>



- 2. 아 버- -지 천 지- - 왕 상 봉--- 허 니 - - -
- 4. 소 별- -왕 이 싱- - 법 욱 심--- 나 니 - - -
- 6. 소 별왕피에 대 별-왕 이 지 어--- 간 다 - - -
- 10. 소 별왕피에 대 별-왕 이 또 졌--- 구 나 - - -
- 14. 드 디- -어 천 지질서 가 생 졌--- 구 나 - - -

<천지왕 선율 3>



- 3. 대별 왕은 이 싱- 법 소별 -왕 은 저 싱- 법 마련 -허 라
- 7. 경허 걸랑 꽃 번성을 시- -켜 서 마 음대로 마련 -허 자
- 8. 대별 왕꽃 번 성- 꽃 소별 -왕 꽃 시 든- 꽃 되어 -간 다
- 12. 해도 두개 달 도두개 세상 -천 하 난 리법석 이로 -구 나

- 1)말제 : 나중에
- 2)난 건 : 태어난 것은
- 3)이싱법 : 이승법, 이승을 다스림
- 4)저싱법 : 저승법, 저승을 다스림
- 5)수치적격 : 수수께끼
- 6)스름 : 사람
- 7)마련협써 : 마련하세요, 마련합시다
- 8)지어간다 : 졌구나
- 9)경허걸랑 : 그러면
- 10)꽃번성 : 꽃가꾸기

-균용덕담풀이-

<천지왕 선율 4> *후렴



*후렴 오늘 오늘 오늘은 오-널-이 라 날-도 좋 -아 오-널 이 라

<천지왕 선율 5>



1. 들도 좋네 - - - - 오-널 이 라 놀 기 좋아 - -- 어 제-오-널 -
3. 강남갔던 - - - - 제 비 새 도 삼 월 삼진 되 면- 좇 아-오 고 -

<천지왕 선율 6>



2. 흐- 루- 산 - 도 쉬 어- 념 자 구-름 산 -도 쉬 고 념 자
4. 우리네- 신 들 도 놀 다- 가 자 우-리 들 -도 놀 다 가 자

- 1)오널 : 오늘
- 2)흐루 : 하루
- 3)들 :달(月)

(2) 멩감본풀이의 선율 추출

멩감 본풀이는 ‘사만이 본풀이’라고도 불리며 무반주의 자유리듬의 선율로 음계 구성음도 <do-re-mi-fa-sol-ra-do'-re'-mi'>로 상당히 폭넓게 사용되어 선율적 흐름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자유리듬으로 노래 부르고 있으나, 그 리듬이 규칙적인 자유 정형리듬으로

정형화가 가능하다. 이는 '6/8박+6/8박+6/8박'이나, '6/8박+6/8박+5/6박' 등으로 정형화가 가능한데, 그 중 '6/8 +6/8 +6/8박'으로 정형화시켰으며, 그로 인해 원래 무반주로 불렀으나, 정형화된 박으로 반주장단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6/8박자의 무악에서 사용하는 '♪♪♪♪'의 반주를 사용하면 좋겠다.

3개의 선율을 멩감본풀이의 대표 선율로 추출하였다. 추출된 선율은 다음과 같다. 추출 선율에서는 자주 쓰이는 음을 중심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mi-sol-ra-do'-mi'>음을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악보 7> 멩감본풀이 주요선율 a³⁷⁾ <멩감본 선율 1>



<악보 8> 멩감본풀이 주요선율 b³⁸⁾ <멩감본 선율 2>



<악보 9> 멩감본풀이 주요선율 c³⁹⁾ <멩감본 선율 3>



추출한 선율에 가사를 붙여 다음과 같이 악보화 해보았다. 가사는 멩감본풀이 내용 중 사만이가 죽어 저승사자(삼차사)에게 잡혀가게 되었는데, 사만이를 잡으러 온 삼차사를 잘 대접하여 삼차사가 차마 사만이를 데려가지 못하고

37) 위의 책, 526쪽.

38) 위의 책, 558쪽.

39) 위의 책, 528쪽.

대신 저승으로 돌아가 저승명부에 삼십에 죽는다는 것을 ‘십(十)’자에 한 획을 더 하여 삼천(千)년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을 가사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원래 자유리듬으로 마음대로 부르던 것을 정형화하였기 때문에 멧감본풀이의 선율을 계속하여 연속으로 부르기에는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부르게 되므로, 편하게 부르는 노래인데 무척 힘든 노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세 마디를 부른 뒤에 한 마디를 쉬고 부를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표 6> 멧감본풀이의 가사 모음

-멧감본풀이(수명신 사만이)-

※선율들을 바로 연결해서 노래 부르기에는 아동들의 폐활량이 부족하므로 세 마디를 부른 뒤 한 마디(J. J.)를 손장단을 치고 쉬며 부른다.

<멧감본 선율 1>



- 1. 삼 차 사 가 내 러 서 서 보 - 니 -
- 3. 시 장 허 난 우 선 떡 어 버 - 리 고
- 7. 소 서 만 이 정 - 성 을 받아 지 니
- 9. 이 러 지 도 저 러 지 도 못 - 하 고
- 10. 저 승 문 서 소 서 만 이 이 름 아 래
- 15. 삼 - 천 - 년 - 이 - 되 었 구 나

<멧감본 선율 2>



- 2. 소 - 사 만 이 출 려 놓 은 데 오 게 되 니
- 6. 소 - 사 만 일 잡 - 으 래 - 오 - 는 디
- 12. 흐 - - 제 를 비 - 껴 - - 일 천 천 자
- 14. 서 - 른 에 - 죽 는 것 이 - 아 - 니 라
- 16. 사 - 만 이 - 조 상 덕 에 - 살 아 남 쩌

<명감본 선율 3>



4. 신 발 을 갈 아 신 고 왕 래 옷 받 안
 5. 주 인 을 알 려 고 - 배 - 려 보 난
 8. 삼 차 사 곱 곱 이 - 생 - 각 하 니
 11. 서 른 에 죽 으 라 고 한 - - 길 -
 13. 고 - 찌 삼 천 년으로 고 - 찼 구 나

- 1)출려놓은 : 차려놓은
- 2)시장허난 : 배가 고파서
- 3)훈제 : 한글자
- 4)왕래옷 : 외출복
- 5)받안 : 받으니
- 6)배려보난 : 바라보니, 찾아보니
- 7)살아남찌 : 살아나는구나

(3) 영감본풀이의 선율 추출

영감본풀이는 ‘서우제소리’로도 불리며, 본디 무가이나 제주도 전역에 널리 퍼져서 민요로써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곡으로, 가락이 고정적이고 유창하다.

영감본풀이는 6/8박자로 4마디의 선소리와 또 다른 4마디의 후렴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도는 느리게 시작하여 점점 빠르게 가창한다. 즉 진서우제소리에서 자진서우제소리로 이어진다. 6/8마디가 4마디로 정형화되어 있어 진서우제소리는 굿거리 장단이나 중중모리 장단, 자진서우제소리는 자진모리 장단과 어울린다.

영감본풀이의 선율 추출은 진서우제와 자진서우제로 나누어 추출하였다.

진서우제 소리에서는 선소리는 리듬은 거의 비슷하고 음은 그 시김새에 따

라 조금씩 다르게 불리는데, 그 중 확연히 가락이 차이 나게 불리는 선율을 2가지 종류로 추출하였고, 후렴은 ‘꽤지나칭칭나네’, ‘강강술래’ 처럼 같은 소리를 반복한다.

진서우제소리에서 추출해낸 대표적인 2가지 선소리 선율과 후렴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0> 진서우제소리의 선소리 선율 a⁴⁰⁾ <서우제 선율 1>



<악보 11> 진서우제소리의 선소리 선율 a⁴¹⁾ <서우제 선율 2>



<악보 12> 진서우제소리의 후렴 선율⁴²⁾ <서우제 선율 3>



빠르기를 서서히 빠르게 변화시켜 자진서우제소리로 이어지는데, 자진서우제소리를 길게 부르기도 하지만, 수업안에서 진서우제소리 익히기와 빠르기의 변화 자체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고자 자진서우제 소리는 선소리 하나만 추출하여 짧게 부르도록 한다.

40) 위의 책, 646쪽.

41) 위의 책, 648쪽 참고.

42) 위의 책, 647쪽.

자진서우제소리에서 추출해 낸 대표 선소리 선율과 후렴 선율은 다음과 같다.

<악보 13> 자진서우제소리의 선소리 선율⁴³⁾ <서우제 선율 4>



<악보 14> 자진서우제소리의 후렴 선율⁴⁴⁾ <서우제 선율 5>



추출한 선율에 가사를 붙여 다음과 같이 악보화 해보았다. 영감신본풀이는 영감신, 즉 도깨비신에 관한 내용인데 그 창자에 따라 내용이 굉장히 달라진다⁴⁵⁾. 본 녹음자료에는 도깨비신이 어떻게 하여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고, 도깨비신의 특성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다. 그리고 자진서우제소리에서는 민요화되어 부르는 가사인 바다노동에 관한 가사가 많다. 이런 가사를 반영하여 자진서우제소리에서는 도깨비신이 어떻게 제주에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사를 넣어보았고, 자진서우제소리에서 마무리 하여 보았다.

43) 위의 책, 657쪽.

44) 위의 책, 657쪽.

45) 현용준,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백록어문 제5호』 (제주:제주대학교국어교육과국어교육연구회, 1988), 9-12쪽.

<표 7> 영감본풀이의 가사 모음

-영감본풀이(서우제소리)

-진서우제소리-

<서우제 선율 1> (선소리)



1. 어 허 - 여 차 --- 소리- - 에 다 서 우-제 소 리-로 놀 고놀 자 -
2. 서 울 - 이 라 --- 허정- 승 에 - 아 털-이 사 -- - 일 곱형 제 여
4. 둘 째 아 털 은 --- 나아- 가 서 - 강 원-도 금 강-산 츠 질협 데 다
6. 다 셋 째아 털 --- 전라도지 리 산 여 셋-째 아 털-은 목 포유 달 산

<서우제 선율 2> (선소리)



3. 큰-아 털- 은--- 나 아-가서 - 서울이라-- 삼각산 - 츠질허 고 예
5. 셋-째 아털은--- 나 아-가서 - 경- 상-도- 태백산 - 츠질 - 허 고
7. 일-곱 체- 랑--- 조 근-아털 은 제- 주-도- 한라산 - 와졌구 나 예

<서우제 선율 3> *후렴



*후렴 아 아 아 - - - 야 - - 어 - - - 어 양 - - - 어 - - - 요

-자진서우제소리-

<서우제 선율 4> (선소리)



1. 어 - - 가 차 소 리 에 잘 - 념 어 간 - 다
2. 영 - - 감 님 신 수 법 다 - 풀 러 불 써 헤

<서우제 선율 5> *후렴



*후렴 아 - 아 - - 야 어 - 양 - 어 - - 요

- 1)아덜 : 아들
- 2)츄질허고 : 차지를 하고
- 3)조근 : 작은(막내)
- 4)와졌구나 : 오게 되었구나
- 5)봍씨 : 봍시다

2. 추출한 선율의 음악수업 적용방안

1) 적용방향과 원칙

음악교육은 기능교육에 앞서 인간이 더욱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렇듯 인간 존재 자체의 의미를 줄 수 있는 음악 교육의 가치를 구체화 시키는 요소 중, ‘교재’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교재 변용 조건을 중심으로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 교재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음악과 교육과정에 토대를 두고, 계획적,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교육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적 활동으로서, 교육에 활용되는 제재, 교육내용, 활동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구조화하여야 한다.

둘째, 체계화된 절차 및 방법이 있어야 한다. 이는 초등학교 음악과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하여 그 체계를 따르도록 하겠다.

셋째, 노래의 익힘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국악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우리 음악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하도록 한다. 국악가창교육은 단순히 노래만 잘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재곡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학습 요소를 함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가창교재는 메기고 받으며 부르기, 가사 바꾸어 부르기, 음악극 등의 여러 학습 요소를 추출하여 내용을 체계화하겠다.

넷째,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주 무악에는 학습자 수준에 어려운 고어, 방언, 한자어 등이 많이 들어있다. 이를 원형을 살리면서 변용이 가능한지 살펴야 하겠다. 그리고 내용도 너무 잔인한 부분들이 많으므로 이 또한 아동들의 정서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적 허용성을 고려해야 한다. 타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반발이 없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본풀이는 무악이기 때문에 종교적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로마 신화를 종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즐겁게 읽혀지듯이, 제주 무악의 본풀이를 종교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우리나라에서 구전되어 온 신화라고 생각하고, 그 신화가 담겨진 노래를 배운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제재명을 무속의 느낌이 강한 ‘본풀이’라고도 쓰되, 다른 이름도 정하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천지왕본풀이’를 ‘대별왕 소별왕’라는 이름으로도 쓰고자 한다(이는 괄호 안에 적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학습자의 수준은 5-6학년 수준에 맞도록 지도 내용을 구성하겠다.

2) 지도내용 및 적용 개요

지도 내용은 현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요소들 중 각각의 제재곡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골라 지도하도록 하고, 제주 무악에서 추출한 선율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다양한 국악 학습 요소들을 익힐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가창교육이 되려면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는 가창 활동만이 아닌, 다른 활동과 함께 병행하는 것이 노래를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학습활동에는 가창활동 뿐만이 아니라, 장단치기, 음악극, 가사창작, 가락창작 등의 활동도 병행하도록 한다.

본 초등가창교재는 초등학교 5-6학년을 기준으로 지도하도록 계획하였다.

각 제재의 차시별 학습 내용 및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8>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의 지도계획

제재	차시	학습 내용	학습 활동
(1)천지왕본풀이 (대별왕 소별왕)	1	·악곡의 구조 ·받는 장단	-제재곡 듣고 부르기 -단락구분 장단 치기
	2	·메기고 받기 ·긋거리 장단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르기 -긋거리 장단을 치며 노래부르기
	3-4	·음악극	-천지왕본풀이를 음악극으로 표현하기
(2)맹감본풀이 (수명신 사만이)	1	·가락의 흐름	-가락의 흐름을 알고 노래부르기
	2	·가락 창작	-민요음계를 사용하여 간단한 가락 창작하기
(3)영감본풀이 (서우제소리)	1	·메기고 받기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르기
	2	·장단의 변화	-중중모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장구 치기 -곡에 알맞은 장단의 변화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3	·가사 창작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 -모듬별로 발표하기

3) 무악 선율별 수업의 실제

(1) 천지왕본풀이(대별왕 소별왕) 선율의 수업안

가. 제재 개관

천지왕본풀이는 제주의 모든 곳을 할 때, 제차 중 가장 먼저 행해지는 초감제에서 주로 행하여진다. 그 내용은 천지개벽신화로, 이 세상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처음에 혼란스런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천지왕이 두 아들

을 낳아, 두 아들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여 다스리게 되는 과정, 마지막으로 세상의 혼돈이 바로 잡혀나가는 내용이 불려지고 있다.

이 제재에서는 천지왕본풀이의 내용 중에, 대별왕과 소별왕이 이승과 저승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내기를 하고 결국 소별왕이 이승을 차지하게 되나, 세상이 혼란스러워 다스리기 어렵자, 대별왕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그 도움으로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에는 군웅덕담풀이가 나오는데, 이를 차시를 달리 하여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배우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차시로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을 기본으로 음악극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다.

나. 제재 목표

- 가) 제재곡의 악곡의 구조를 이해하고 노래부를 수 있다.
- 나) 군웅덕담풀이를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를 수 있다.
- 다) 제재곡에 맞게 받는 장단을 치며 노래부를 수 있다.
- 라) 천지왕본풀이를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수업 자료

- 가) 천지왕본풀이 선율추출 악보, 천지왕본풀이 신화, 음악극 소품
- 나) 악기 : 장구, 소고나 손장단을 칠 수 있는 생활도구
- 다) 음악극 영상자료

라. 지도 내용

차시	주요 내용	주요 활동
1	·악곡의 구조 ·받는 장단	-제재곡 듣고 부르기 -단락구분 장단 치기
2	·메기고 받기 ·굿거리 장단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르기 -굿거리 장단을 치며 노래부르기
3-4	·음악극	-천지왕본풀이를 음악극으로 표현하기

마. 지도상의 유의점

- 가) 제재곡에 맞는 장단 치기는 정해진 장단을 익혀 친다기 보다, 리듬감을 위해 치는 것으로, 노래보다 장단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나) 장단은 굳이 장구로 칠 필요없이 바가지와 같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두드릴 수 있는 악기로 대체한다.
- 다) 음악극은 가사의 내용에 따라 학습자가 표현방법을 생각해내도록 하며, 본 제재곡의 내용은 천지왕본풀이의 일부이므로 가사를 바꾸어 다른 부분이나 전체 내용을 표현할 수도 있다.

바. 수업의 실제

가) 1차시

중점지도내용	·악곡의 구조 ·받는 장단
수업 목표	1. 제재곡의 악곡의 구조를 이해하고 노래부를 수 있다. 2. 제재곡에 맞게 받는 장단을 치며 노래부를 수 있다.
수업 자료	·‘천지왕본풀이’ 신화 ·장단을 칠 수 있는 생활용품(바가지 등)

<도입>

-천지왕본풀이 이야기 듣기

◆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야기 해본다.

(가이아와 그의 아들이야기, 프로메테우스이야기, 판도라이야기 등)

◆ 우리나라 신화 중 알고 있는 천지개벽신화가 있는지 물어본다.

◆ 천지왕본풀이의 내용을 들려준다.

<전개>

-제재곡 익히기

◆ 사투리의 의미에 주의하며 가사를 살펴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본다.

◆ 일반적으로 배우던 제재곡과의 차이점을 생각해본다.(마디가 다르다 등)

◆ 악보를 보고, 부르는 방법을 생각해본다.

(우선 선율을 알고, 가사의 번호 순서대로 부른다.)

◆ 교사의 선창을 듣고 3가지 선율을 따라 부른다.



1. 먼 저난건 대 -별 왕 말 제난-걸 랑 소 - 별- 왕 - - - -



2. 아 버- -지 천 지- - 왕 상 봉--- 허 니 - - - -



3. 대별 왕은 이 싱- 범 소별 -왕 은 저 싱- 범 마런 -허 라

- ◆ 선율을 충분히 익히면 교사의 선창을 듣고 제재곡 전체를 따라 부른다.
- ◆ 다같이 교사의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
(※마지막 마디를 아동들이 급하게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부르도록 한다.)

-받는 장단 치며 부르기

- ◆ 6/8박자의 한 마디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단을 만들어본다.



- ◆ 노래 부르기에 가장 쉽고, 제재곡에 어울리는 장단을 고른다.
- ◆ 그 장단을 노래를 부르는 선율 마지막 마디인 장단을 치는 마디에 친다.
- ◆ 받는 장단을 치며 노래 부른다.

<정리>

-받는 장단을 치며 제재곡 전체 부르기

- ◆ 받는 장단을 치며 제재곡을 부른다.

<평가관점>

- (ㄱ) 악곡의 구조를 이해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가?
- (ㄴ) 어울리는 받는 장단을 치며 노래 부를 수 있는가?

-군웅덕담풀이를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르기

- ◆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를 전체 다같이 부른다.
- ◆ 남학생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고, 여학생이 받는 소리를 부르며 노래 부른다.
- ◆ 한 모둠이 메기는 소리를 부르고, 다른 모둠들이 받는 소리를 부르며 노래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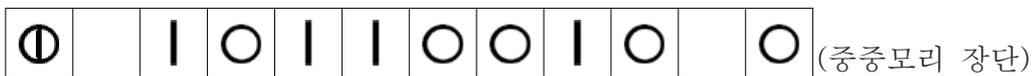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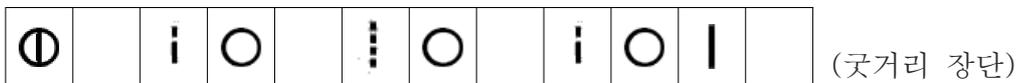
-장단치며 노래부르기

- ◆ 기본박을 치며 노래부른다.



- ◆ 굿거리 장단을 치며 노래부른다.

(※중중모리도 가능하다.)



- ◆ 두 모듬으로 나누어 한 모듬은 장단을 치고, 다른 모듬은 노래를 부른다.

<정리>

-군웅덕담풀이 선소리 바꾸어 부르기

- ◆ 선소리의 가사를 우리반의 특징을 살려 바꾸어본다.
- ◆ 잘 된 바꾼 가사로 전체가 부른다.

<평가 관점>

- (ㄱ)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를 수 있는가?
- (ㄴ) 장단을 살려 노래 부를 수 있는가?

다) 3-4차시(연속차시)

중점지도내용	·음악극
수업 목표	1. 천지왕본풀이를 음악극으로 표현할 수 있다.
수업 자료	·장구, 음악극 영상자료, 음악극에 필요한 소품

<도입>

-‘천지왕본풀이’와 ‘군웅덕담풀이’ 부르기

- ◆ 가사를 생각하며 부른다.

-음악극 감상하기

- ◆ 다른 음악극(예:금다래꿈)을 보고 음악을 극으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감상한다.

<전개>

-‘천지왕본풀이’ 음악극 준비하기

- ◆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야기를 듣는다.
- ◆ 대별왕과 소별왕의 이야기를 노래에서 모듬별로 음악극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생각한다.
- ◆ 역할을 정한다. (대별왕, 소별왕, 천지왕, 해, 달 등)
- ◆ 노래 각각의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지 토론한다.
- ◆ 소품 등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 모듈별로 음악극을 연습한다.

-음악극 발표하기

◆ 모듈별로 나와서 음악극을 발표한다.

<정리>

-음악극을 본 뒤 평가하기

◆ 잘 된 점과 고칠 점을 이야기한다.

◆ 재미있었던 점을 이야기한다.

◆ 가장 잘한 모듈과 잘 된점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평가관점>

(1) 모듈원끼리 협동하여 음악극으로 표현을 잘 하였는가?

(2) 멩감본풀이(수명신 사만이) 선율의 수업안

가. 제재 개관

멩감본풀이가 가장 많이 불리는 때는 제주 무악에서 신년굿인 정월달의 ‘철같이’ 굿을 할 때 1년간의 행운을 비는 굿을 할 때이다. 그리고 시왕맞이 큰 굿을 할 때, 액막이 제차 등에도 가창된다. 이 본풀이에서 사만이가 삼 차사에게 액을 막아 삼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집안사람이 죽어갈 때 그 액을 막고자 기원하는 것이다. 멩감본풀이를 사만이본풀이라고도 하며 사만이라는 신은

우리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이다, 본 제재에서는 멩감본풀이의 내용 중에서 사
 만이가 서른 살에 저승사자(삼차사)에게 잡혀가 죽게 되었는데, 이를 지혜롭
 게 해결하여 저승에 잡혀가지 않고 도리어 삼천년을 더 사는 내용을 다뤘다.
 음계구성음이 본디 다양한 편이나, 추출된 선율에서는 ‘미-솔-라-도-미’를 중
 심으로 민요음계를 살렸다.

나. 제재 목표

- 가) 가락의 흐름을 알고 노래 부를 수 있다.
- 나) 민요음계를 사용하여 간단한 가락짓기를 할 수 있다.

다. 수업 자료

- 가) 멩감본풀이 선율추출 악보, 사만이 이야기, 가락 창작 학습지
- 나) 악기 : 가락악기(가락창작용), 장구

라. 지도 내용

차시	주요 내용	주요 활동
1	·가락의 흐름	-가락의 흐름을 알고 노래부르기
2	·가락 창작	-민요음계를 사용하여 간단한 가락 창작하기

마. 지도상의 유의점

가) 장식음이 많지 않고 리듬이 단순하므로 리듬을 파악한 후 노래하도록 한다.

나) 가락 창작은 리듬은 고정하고 가락만 창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능숙한 아동은 리듬까지 창작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수업의 실제

가) 1차시

중점지도내용	·가락의 흐름 ·자연스러운 발성
수업 목표	1. 가락의 흐름을 알고 노래부를 수 있다.
수업 자료	·사만이이야기, 장구

<도입>

-멧감본풀이의 신화 이야기하기

◆ 사만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개>

-가사 내용 파악하기

◆ 가사를 함께 읽는다.

◆ 가사 내용은 전체 이야기 중 어느 부분인지 파악한다.

(삼차사를 만나 지혜롭게 해결하는 부분,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

-듣고 따라 부르기

◆ 세 마디씩 따라 부른다.



1. 삼 차 사 가 내 려 서 서 보 - 니 -



2. 소 - 사 만 이 출 려 놓 은 데 오 게 되 니



4. 신 발 을 갈 아 신 고 왕 래 옷 받 안

◆ 미흡한 부분을 다시 익힌다.

◆ 여러 번 반복하여 부른다.

◆ 마지막 쉬는 마디에 손장단을 치며 부른다.

-가락의 흐름 알기

◆ 제재곡의 구성음을 살핀다. (미, 솔, 라, 미)

◆ 제재곡을 부르며 가락의 흐름을 살핀다.

<정리>

-악곡의 특징 살려 부르기

◆ 가락의 흐름과 빠르기를 살려 제재곡을 부른다.

<평가관점>

(ㄱ) 가락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노래 부를 수 있는가?

나) 2차시

중점지도내용	·가락 창작
수업 목표	1. 민요음계를 사용하여 가락짓기를 할 수 있다.
수업 자료	·장구, 가락 창작 학습지, 가락악기

<도입>

-지난 시간에 배운 노래 부르기

◆ 멍감본풀이를 부른다.

-가락창작 시 주의할 점 알아보기

◆ 가락짓기를 할 때 주의할 점을 알아본다.

(음표가 한 마디에 잘 맞도록 가락을 짓는다, 음의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등)

<전개>

-멍감본풀이 선율 a의 가락 만들기

◆ 민요음계인 5음을 사용하여 가락의 계이름을 정간보에 적어본다.

◆ 음의 연결이 어색하지 않은지 가락악기(단소, 리코더, 멜로디언 등)로 연주해보고 수정한다.

◆ 만든 정간보의 가락을 오선보에 적는다.

◆ 악보를 보며 지은 노래를 연주한다.

- ◆ 악보를 보며 지은 노래를 불러본다.
- ◆ 잘하는 학생은 리듬도 바꾸어 지어보도록 한다.

- 창작가락 발표하기

- ◆ 자기가 지은 가락을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서 발표한다.
- ◆ 발표한 가락이 어떤지 평한다.

<정리>

-학습하며 느낀 점 이야기하기

- ◆ 가락을 지으며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 ◆ 만든 가락을 부르기에 자연스러운가?

<평가관점>

- (㉠) 자연스러운 가락을 만들 수 있는가?
- (㉡) 만든 가락을 연주하거나 노래 부를 수 있는가?

(3) 영감본풀이(서우제소리) 선율의 수업안

가. 제재 개관

이 제재는 제주 무악에서 본래 영등굿 등의 굿을 할 때 석살림이나 영감놀이 등의 제차에서 부르는 무가이나 제주도 전역에 널리 퍼져서 현재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도 민요로써 널리 불려지고 있다. 영감본풀이는 영감신(도깨비)

에 관한 본풀이나, 민요로써 불려지면서 바다노동과 관련된 사설이 들어가기
도 한다.

본 제재곡에서는 바다노동과 관련된 사설보다는 영감신에 관한 내용으로 중
점을 두고, 가사를 바꾸어 메기고 받으며 불러볼 수 있도록 하며, 장단의 변
화에 따른 악곡의 특징을 아는 데에 지도의 중점을 둔다.

나. 제재 목표

- 가)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를 수 있다.
- 나) 빠르기 변화에 따른 악곡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다)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를 수 있다.

다. 수업 자료

- 가) 영감본풀이 선율추출 악보
- 나) 악기 : 장구
- 다) 서우제소리 녹음자료, 가사 창작 학습지

라. 지도 내용

차시	주요 내용	주요 활동
1	·메기고 받기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르기
2	·장단의 변화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으로 장구 치기 -곡에 알맞은 장단의 변화에 맞추어 노래부르기
3	·가사 창작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 -모듬별로 발표하기

마. 지도상의 유의점

가) 여기에서는 5-6학년 교육과정 상 곳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을 이미 배웠다는 가정 하에 지도내용을 짠 것이다. 만일 학생들이 장단을 어려워한다면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단순화하거나 변형하여 지도한다.

나) 노래를 충분히 익힌 후 가사 바꾸어 노래부르기를 하도록 한다.

바. 수업의 실제

가) 1차시

중점지도내용	·메기고 받기
수업 목표	1. 메기고 받으며 노래부를 수 있다.
수업 자료	·장구, 서우제소리 녹음자료

<도입>

-도깨비에 관한 이야기하기

◆ 도깨비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알아본다.

(금방망이 은방망이 이야기, 도깨비와 개암, 도깨비와 씨름 등)

-영감본풀이의 가사 이해하기

◆ 도깨비신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본다.

(산신령과 같은 존재, 단순하지만 친근함,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함)

<정리>

-두 모듬으로 나누어 노래 부르기

◆ 원래는 무악이나 바다노동과 관련된 노동요로도 불리므로 이를 설명하여,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는 일을 하는 동작을 하며 노래 부른다.

<평가관점>

(ㄱ) 메기고 받으며 노래 부를 수 있는가?

나) 2차시

중점지도내용	·장단의 변화
수업 목표	1. 노래에 알맞게 장구칠 수 있다. 2. 곡에 알맞은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를 수 있다.
수업 자료	·장구, 서우제소리 녹음자료

<도입>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 비교하기

◆ 서우제소리 녹음자료를 듣고, 진서우제소리와 자진서우제소리의 빠르기를 비교한다.(점점 빨라진다.)

-빠르기의 변화에 따른 악곡의 특징 알기

◆ 빠르기가 점점 빨라지면서 악곡의 특징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본다.

(가락이 단순해진다, 점점 흥겹고 신이 나게 된다 등)

<전개>

-‘진서우제소리’와 ‘자진서우제소리’ 부르기

◆ 지난 시간에 배운 ‘진서우제소리’를 부른다.

◆ ‘자진서우제소리’의 후렴을 익혀 부른다.

*후렴 아 - 아 - - 야 어 - 양 - 어 - - 요

◆ ‘자진서우제소리’의 선소리를 익혀 부른다.

1. 어 - - 가 차 소 리 에 잘 - 넘 어 간 - 다

◆ 두 모듬으로 나누어 떼기고 받으며 노래 부른다.

-굿거리 장단과 자진모리 장단 치기

◆ 굿거리 장단을 친다.

⊙		⊙	○		⊙	○		⊙	○		
---	--	---	---	--	---	---	--	---	---	--	--

◆ 자진모리 장단을 친다.

⊙			⊙			⊙			○		
---	--	--	---	--	--	---	--	--	---	--	--

◆ 두 모듬으로 나누어 한 쪽은 노래를 부르고, 한 쪽은 장단을 친다.

◆ 장단에 맞추어 ‘진서우제소리’와 ‘자진서우제’소리를 이어서 부른다.

(굿거리가 빨라지면 단순화하여 장단을 치다가 자진모리로 넘어간다.)

⊙			⊙			⊙			○		
---	--	--	---	--	--	---	--	--	---	--	--

<정리>

-모듬으로 나누어 노래 부르기

◆ 장단의 변화에 맞추어 노래 부른다.

<평가관점>

(㉠) 장단의 변화에 맞는 빠르기로 노래 부를 수 있는가?

다) 3차시

중점지도내용	·가사 창작
수업 목표	1.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부를 수 있다.
수업 자료	·장구, 가사 창작 학습지

<도입>

-‘진서우제소리’와 ‘자진서우제소리’ 노래 부르기

◆ 장구 장단에 맞추어 영감본풀이를 부른다.

<전개>

-가사 창작하기

◆ 모듬별로 메기는 소리의 가사를 창작한다.

◆ 주제를 정하고 가사를 바꾼다.(동물, 바다, 우리 모듬 등)

◆ 가락은 변화시키지 않고 바꾼 가사로 노래 부른다.

◆ 노래를 불러 보고, 가사의 어색한 부분을 고친다.

◆ 받는 소리도 메기는 소리의 가사와 어울리게 가사를 창작한다.

◆ 모듬별로 만든 곡을 연습한다.

-모듬별 발표하기

- ◆ 만든 곡을 친구들 앞에서 부른다.
- ◆ 받는 소리는 다같이 부르고, 메기는 소리는 한 사람씩 노래한다.
- ◆ 학생들은 발표하는 모듬에 대한 평가를 한다.

<정리>

- 가장 잘 된 모듬의 가사로 노래 부르기

- ◆ 가사 창작이 자연스러우며 메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잘 어울렸던 모듬을 정한다.
- ◆ 장단에 맞추어 가장 잘 된 모듬의 가사로 노래 부른다.

<평가 관점>

(ㄱ) 가락에 가사가 잘 어울리는가?

(ㄴ) 장단에 맞추어 바꾼 가사로 노래 부를 수 있는가?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국악교육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제7차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음악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음악 문화를 창달, 발전 그리고 계승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제재곡이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다. 하지만 제재곡이 대부분 민요, 전래동요, 창작국악동요에 국한되어 있다. 다양한 악곡과 음악 활동을 통한 음악 경험은 음악 수업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현 제재곡 이외에 더 다양한 국악곡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존의 연구는 효과적인 음악 제재곡 지도 방안이나, 국악기 기능 습득을 중심으로 연구된 데 대하여 본 논문은 국악 교육의 다양성을 위하여 음악 교육화 연구가 전무했던 무악, 그 중 제주의 무악을 초등가창교재로 개발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음악적 경험하고 음악성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무악을 초등가창교재로 개발하기 위해 제주 무악, 특히 본풀이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제주 무악의 교육적 의의를 파악하고, 초등음악과 교육과정에서의 국악의 방향과 특성을 살펴보고 음악과의 영역별 국악관련 내용을 살펴, 이를 기준으로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의 개요를 설정하였다.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위해 제주 무악의 열두 본풀이 중 대표적 본풀이인 천지왕, 멍감, 영감본풀이의 선율을 추출하여 악보화 작업을 하였고, 이것을 제재곡으로 하여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음악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교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제주 무악을 접함으로써 제주 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이를 통해 제주 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기존에 배우던 것과 다른 국악곡을 익힘으로써 다양한 국악 경험을 체험하여, 이를 통해 생활 주변의 음악에 관심을 갖으며 음악적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이후에 다양한 국악교육용 교재 개발 연구가 활발해지고, 기존의 무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제주 무악의 일반인 열두 본풀이 중 세 가지만을 가지고 교재 개발을 하였다. 제주 무악은 전해 내려오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므로 제주 무악의 교재화에 대한 연구가 폭 넓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국악가창 교육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창작, 감상, 기악 분야에서도 제주 무악에 대한 교재화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를 개발하여 그 지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일반화하는 데에 개발된 교재를 교수·학습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효과를 검증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추후에 적용을 통해 교재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 교육인적자원부, 『음악 3 교사용지도서』,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_____, 『음악 4 교사용지도서』,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_____, 『음악 5 교사용지도서』,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_____, 『음악 6 교사용지도서』, 서울: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 김혜숙, 백대웅, 최태현, 『전통음악개론』, 서울:어울림, 1995.
- 노재명, 문무병, 장휘주, 『제주도의 무속음악』,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 2004.
- 신대철,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 서울:교보문고, 1993.
- 이용일, 『음악 교육 해설』, 서울:현대악보출판사, 1982.
- 장주근,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서울:역락, 2001.
- 제주도, 『제주도 큰 굿 자료 : 1994년 동김녕 문순실댁 중낭클굿』, 제주, 제주전통문화연구소, 2001.
-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서울:민속원, 1991.
_____, 『제주도 전설』, 서울:백록, 1992.
- 하효길 외, 『한국의 굿』, 서울:민속원, 2002.
-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서울:집문당, 1992.
_____,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서울:신구문화사, 1980.
_____, 『濟州島傳説』, 서울:집문당, 1976.

2. 논문집

강정식, 「사설」,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 서울:국립국악원, 2000.

권덕원, 「국악가창교육 내용체계화 연구」, 『국악교육 체계화 연구:가창편』, 서울:국립국악원, 2001.

변미혜, 「바람직한 국악교육의 방향 모색」, 『중앙국악교육 제1호』, 서울:중앙대학교출판부, 2005.

조영배, 「악보」,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 서울:국립국악원, 2000.

현용준, 「영감본풀이와 영감놀이」, 『백록어문 제5호』, 제주:제주대학교국어교육과국어교육연구회, 1988.

3. 참고음반

국립국악원, KBS, 「한국의 굿 NO.4-제주 칠머리당굿」 CD, 서울:국악춘추사, 서울음반, 2000.

4. 참고사이트

<http://www.encyber.com/>(두산세계대백과)

※ 부 록

<부록 1> 천지왕본풀이(대별왕 소별왕) 악보

-천지왕본풀이(대별왕 소별왕)-

<천지왕 선율 1>



- 1. 먼 저난건 대 - 별 왕 말 제난-걸 랑 소 - 별- 왕 - - - -
- 5. 수 치적격 이긴스 림 마 음대-로 - 마 련협- 씨 - - - -
- 9. 잠 자기- 내기하 여 소 별왕-이 가 꽃 바꾸- 어 - - - -
- 11. 소 별왕은 이 - 싱 법 세 상천-하 를 굽 어보- 니 - - - -
- 13. 소 별왕- 겁이나 서 대 - 별-왕 의 도 움받- 아 - - - -

<천지왕 선율 2>



- 2. 아 버- -지 천 지- - 왕 상 봉--- 허 니 - - - -
- 4. 소 별- -왕 이 싱- - 법 욱 심--- 나 니 - - - -
- 6. 소 별왕피에 대 별-왕 이 지 어--- 간 다 - - - -
- 10. 소 별왕피에 대 별-왕 이 또 졌--- 구 나 - - - -
- 14. 드 디- -어 천 지질서 가 생 졌--- 구 나 - - - -

<천지왕 선율 3>



- 3. 대별 왕은 이 싱- 법 소별 -왕 은 저 싱- 법 마련 -허 라
- 7. 경허 걸랑 꽃 번성을 시- -켜 서 마 음대로 마련 -허 자
- 8. 대별 왕꽃 번 성- 꽃 소별 -왕 꽃 시 든- 꽃 되어 -간 다
- 12. 해도 두개 달 도두개 세상 -천 하 난 리법석 이로 -구 나

-균용덕담풀이-

<천지왕 선율 4> *후렴



*후렴 오늘 오늘 오늘은 오-널-이 라 날-도 좋 -아 오-널 이 라

<천지왕 선율 5>



1. 들도 좋네 - - - - 오-널 이 라 놀 기 좋아 - -- 어-제-오-널 -
3. 강남갔던 - - - - 제비 새 도 삼 월 삼진 되 면- 찾 아-오 고 -

<천지왕 선율 6>



2. 흐-루- 산 - 도 쉬 어- 념 자 구-름 산 -도 쉬 고 념 자
4. 우리네- 신 들 도 놀 다- 가 자 우-리 들 -도 놀 다 가 자

- 1)말제 : 나중에
- 2)난 건 : 태어난 것은
- 3)이성법 : 이승법, 이승을 다스림
- 4)저성법 : 저승법, 저승을 다스림
- 5)수치적격 : 수수께끼
- 6)스름 : 사람
- 7)마련협씨 : 마련하세요, 마련합시다
- 8)지어간다 : 졌구나
- 9)경허길랑 : 그러면
- 10)꽃번성 : 꽃가꾸기
- 11)오널 : 오늘
- 12)흐루 : 하루
- 13)들 :달(月)

<부록 2> 천지왕본풀이 이야기⁴⁶⁾

하늘과 땅이 열린 이야기 (대별왕 소별왕)

아주 오랜 옛날에는 하늘과 땅이 시루떡처럼 맞붙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었다. 해도 달도 별도 없어 세상은 깜깜했다.

어느 날 하늘과 땅이 서서히 벌어지면서 산이 뽀족뽀족 솟아나고, 물줄기가 생기고, 하늘에서는 파란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는 검은 이슬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이슬들이 서로 합쳐지고 나뉘지면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생겨났다. 맨 처음 생겨난 것은 별로 많은 별들이 반짝거리며 밤하늘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늘에 암흑이 계속되던 어느 날, 해가 둘, 달이 둘 솟아오르면서 하늘과 땅이 활짝 열렸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해가 둘이어서 낮에는 더워서 죽을 지경이었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았다. 풀과 나무, 새와 짐승들이 모두 사람처럼 말을 하는 바람에 시끄러웠고, 귀신과 인간이 구분 없이 서로 부르고 대답을 하였다.

세상을 다스리는 옥황상제인 천지왕은 인간세상을 내려다보며 걱정을 하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었다. 하늘에 더 있는 별들 중에서 두 개의 별이 반짝거리더니 신비한 기운이 땅으로 뻗어 가 두 마리 용으로 변하여서 해와 달을 하나씩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이 꿈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을 아들을 낳을 꿈이구나.’

천지왕은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 세상에서 신부감을 찾아보았다. 그리하여 지상의 총맹부인과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총맹부인의 집으로 갔다.

46) <부록2>와 <부록4>에 나오는 천지왕, 맹감본풀이 신화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아동의 정서에 맞게 재구성함.

현용준, 『濟州島傳説』, (서울:집문당, 1976).

진성기, 『제주도 전설』 (서울:백록, 1992).

강정식, 「사설」, 『한국음악 제31집-제주도 칠머리 당굿』 (서울:국립국악원, 2000).

총맹부인은 손님이 왔으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으나, 집이 가난하여 그럴 수 없었다. 그래서 마을의 거부인 수명장자에게 쌀을 꾸어 밥을 했다. 수명장자는 못된 성품을 지녀 쌀 안에 모래를 섞어 그 양을 속여서 빌려 주었다.

천지왕은 총맹부인이 한 밥을 먹는데, 그 안에 돌이 씹히는 것이었다. 어찌 밥에서 돌이 씹히는가 물었더니 수명장자에게 꾸는 쌀에 돌이 들어있어 그랬다는 사실을 알았다. 천지왕은 화가 나서 수명장자의 집을 찢더미로 만들어버렸다.

이윽고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천지왕은 하늘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 봐야 했다.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첫째는 대별왕이라 이름 짓고, 둘째는 소별왕이라 이름 지으시오.”

그리고 박씨 2개를 총맹부인에게 주고 하늘로 올라갔다.

얼마 후, 총맹부인은 쌍둥이를 낳아서 대별왕, 소별왕이라 이름 지었다. 글공부를 할 나이가 되어 서당에 보냈더니 공부 잘하기로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별왕과 소별왕이 울면서 집으로 들어오며 말하기를, “어머니, 서당에 가면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놀립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라고 말했다.

총맹부인은 그제서야 천지왕이 아버지란 걸 밝히고 박씨를 내주었다.

대별왕과 소별왕은 박씨를 정성껏 심었다. 박씨는 심자마자 하룻밤 사이 쑥쑥 자라 하늘까지 올라갔다. 두 아들에게 천지왕은 대별왕은 이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은 저승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소별왕을 이승을 다스리고 싶어 꾀를 내었다.

“형님, 우리 수수께끼를 내어 이기는 사람이 저승과 이승 중 어느 곳을 다스릴 지 정하도록 합시다.”

“그래, 네 말대로 하자.”

소별왕은 수수께끼를 내었다.

“추운 겨울 동짓날에 어떤 나뭇잎이 떨어지고, 어떤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속이 짝 차있는 나무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속이 빈 나무(풀)는 잎이 떨어지지.”

대별왕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형님.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비었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고, 머귀나무는 속이 짝 차 있어도 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별왕은 수수께끼를 또 내었다.

“어째서 동산 위의 풀은 길게 자라고, 고랑에 있는 풀은 짧습니까?”

“그건 아니다. 동산 위의 풀보다 고랑의 풀이 더 길다.”

“형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인간의 머리가 동산 위처럼 위에라도 길게 자라는 법입니다.”

피를 낸 소별왕의 수수께끼에 대별왕이 졌다. 대별왕이 말했다.

“그럼, 우리가 꽃을 심어서 잘 자라는 꽃을 보고 이승을 차지할 지, 저승을 차지할 지 정하자.”

둘이 심은 꽃씨는 대별왕이 심은 꽃씨는 꽃이 싱싱하게 잘 자라는데, 소별왕이 심은 꽃은 시들시들해졌다. 소별왕은 또다시 피를 내었다.

“형님, 이번에는 우리 누가 오래 자나 내기를 해봅시다.”

“그래, 알았다.”

대별왕은 의심 없이 깊은 잠에 빠졌고, 소별왕은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자기 꽃과 형의 꽃을 뒤바꿨다. 그런 후에 대별왕을 깨웠다.

“형님, 어서 일어나세요. 꽃 가꾸기 내기가 남았잖습니까?”

대별왕이 일어나서 바라보니 꽃이 뒤바뀌어 있었다.

“동생아, 음흉한 너의 계략으로 내가 이승을 차지하지만은, 이승은 다스리

기 어려운 점이 많으니 주의하여라.”

그리고는 저승으로 내려갔다.

소별왕이 이승에 갔더니 해는 두 개있어 낮에는 너무 덥고, 달도 두 개 있어 밤에는 살얼음처럼 추운 것이었다. 결국 소별왕은 대별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대별왕은 커다란 활을 가지고 와서 해와 달을 하나씩 쏘아 떨어뜨렸더니, 지금처럼 해가 한 개, 달이 한 개가 되면서 날씨가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시끄러웠다.

“형님, 풀과 짐승이 말을 하고, 귀신과 사람이 함께 사니 제 힘으로는 도저히 산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착한 대별왕은 동생의 부탁에 짐승과 풀과 나무에게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귀신과 사람을 구별하여 주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었다.

<부록 3> 멩감본풀이(수명신 사만이) 악보

-멩감본풀이(수명신 사만이)-

※선율을 바로 연결해서 노래 부르기에는 아동들의 폐활량이 부족하므로 세 마디를 부른 뒤 한 마디(↓. ↓.)를 손장단을 치고 쉬며 부른다.

<멩감본 선율 1>



- 1. 삼 차 사 가 내 려 서 서 보 - 니 -
- 3. 시 장 허 난 우 선 떡 어 버 - 리 고
- 7. 소 서 만 이 정 - 성 을 받아 지 니
- 9. 이 러 지 도 저 러 지 도 못 - 하 고
- 10. 저 승 문 서 소 서 만 이 이 름 아 래
- 15. 삼 - 천 - 년 - 이 - 되 었 구 나

<멩감본 선율 2>



- 2. 소 - 사 만 이 출 려 놓 은 데 오 게 되 니
- 6. 소 - 사 만 일 잡 - 으 래 - 오 - 는 디
- 12. 혼 - - 제 를 비 - 껴 - - 일 천 천 자
- 14. 서 - 른 에 - 죽 는 것 이 - 아 - 니 라
- 16. 사 - 만 이 - 조 상 덕 에 - 살 아 남 찌

<멩감본 선율 3>



- 4. 신 발 을 갈 아 신 고 왕 래 옷 받 안
- 5. 주 인 을 알 려 고 - 베 - 려 보 난
- 8. 삼 차 사 곰 곰 이 - 생 - 각 하 니
- 11. 서 른 에 죽 으 라 고 한 - - 결 -
- 13. 고 - 찌 삼 천 년으로 고 - 쳤 구 나

- 1)츨러놓은 : 차려놓은
- 2)시장허난 : 배가 고파서
- 3)흔제 : 한글자
- 4)왕래웃 : 외출복
- 5)받안 : 받으니
- 6)베려보난 : 바라보니, 찾아보니
- 7)살아남쨌 : 살아나는구나

<부록 4> 멩감본풀이 이야기

사만이 이야기

옛날에 사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부모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얻어 먹으며 살다가 같은 처지의 처자를 아내로 삼아 함께 살고 있었다. 매우 가난한데 아이들은 커가니 밥 한 끼라도 배불리 먹이고자 아내가 자신의 긴 머리채를 잘라서 남편인 사만에게 주었다.

“이 머리카락을 시장에 가 팔아서 쌀을 사 오세요.”

사만이는 장으로 가서 석 냥을 받고 팔고, 시장구경을 하는데, 못 보던 물건이 있어 물어보니 총이라는 것으로, 이것만 있으면 살 길이 있다고 하여 머리카락을 판 돈으로 사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사만이는 불만을 토로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사냥에 나섰는데, 아무리 쫓아도 짐승을 잡지 못하였다. 그러는 중 밤이 되자, 사만이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사만이는 겁이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침이 되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던 곳으로 가보았다. 거기에는 해골 하나가 있었다.

“나는 백정승의 아들로 네가 맨 총으로 사냥을 하다가 안 좋은 일을 겪어 이와 같이 되었다. 나를 데려가 모시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해골이 말했다. 사만이는 해골을 데려다가 모셨고, 그 뒤로 사만이는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몇 년이 흐른 후 해골 조상이 사만이를 불러 말하기를, 사만이를 곧 죽게 될 것이니, 살고 싶으면 저승차사에게 잡혀가지 않을 방책을 알려주었다.

“신 세 켈레와 밥 세 그릇을 가지고 삼신산에 올라가 절을 하면 살 도리가 있을 것이다.”

시키는 대로 했더니, 차사들은 와서 배고프고 신발은 헤어져서 사만이가 차려놓은 대접을 정신없이 먹고, 입고했더니 삼 차사는 사만에게 대접받은

게 있어서 차마 그를 데려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장부에 있는 삼십년의 수명을 ‘십(十)’에 한 획을 더 그어 ‘천(千)’으로 바꾸어 수명을 삼천년이 되게 하였다.

그러하여 사만이는 삼천년을 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저승의 삼 차사들은 후회하고 여러모로 그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으나, 사만이는 그때마다 수를 써서 잡히지 않고 사만 년까지 살았다.

그렇게 삼 차사가 사만이를 붙잡으려 애를 쓰던 어느 날, 삼 차사는 피를 내였다. 삼 차사는 인간의 몸으로 변하여 사람이 많이 다니는 개울에서 검은 솥을 씻었다. 몇 날 몇 일 동안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백발 노인이 지나다가 그 모습을 보고 허허 웃더니,

“참, 내 사만 년을 살아도 솥을 물에 씻는 일은 처음 보네. 솥도 씻으면 희어지는가?”

그러면서 또 한바탕 웃어댔다.

“옳지, 네가 바로 사만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만이를 잡아서 저승에 데려갔다.

<부록 5> 멩감분풀이 가락창작 학습지(2차시)

<가락 창작 학습지>

()학년 ()반 ()번 이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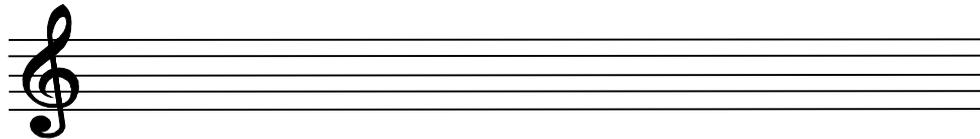
1. 다음 가락과 같은 리듬에 새로운 가락을 만들어 봅시다.



-정간보에 음을 적어 봅시다.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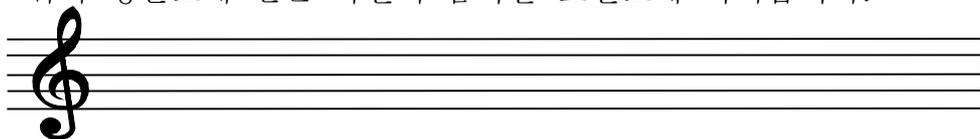
-정간보에 적은 것을 참고하여 오선보에 그려 봅시다.



2. 리듬과 가락을 어울리게 만들어 봅시다.

-정간보의 칸에 맞도록 리듬과 음을 적어봅시다.

-위의 정간보에 만든 자신의 음악을 오선보에 적어봅시다.



3. 자신이 만든 가락을 연주해 봅시다.

<부록 6> 영감본풀이(서우제소리) 악보

-영감본풀이(서우제소리)

-진서우제소리-

<서우제 선율 1> (선소리)



1. 어 허 - 여 차 --- 소리- - 에 다 서 우-제 소리-로 놀 고놀 자 -
2. 서 울 - 이 라 --- 허정- 승 예 - 아 털-이 사 -- - 일 곱형 체 여
4. 들 쟈 아털 은 --- 나아- 가 서 - 강 원-도 금 강-산 츠 질협 데 다
6. 다 섯 쟈아 털 --- 전라도지 리 산 여 섯-쟈 아 털-은 목 포유 달 산

<서우제 선율 2> (선소리)



3. 큰-아 털- 은--- 나 아-가서 - 서울이라-- 삼각산 - 츠질허 고 예
5. 셋-쟈 아털은--- 나 아-가서 - 경- 상-도- 태백산 - 츠질 - 허 고
7. 일-곱 체- 랑--- 조 근-아털 은 제- 주-도- 한라산 - 와졌구 나 예

<서우제 선율 3> *후렴



*후렴 아 아 아 --- 야 -- 어 --- 어 양 --- 어 --- 요

- 1)아털 : 아들
- 2)츠질허고 : 차지를 하고
- 3)조근 : 작은(막내)
- 4)와졌구나 : 오게 되었구나

-자진서우제소리-

<서우제 선율 4> (선소리)



1. 어 - - 가 차 소 리 에 잘 - 념 어 간 - 다
2. 영 - - 감 님 신 수 범 다 - 풀 려 봄 씨 헤

<서우제 선율 5> *후렴



*후렴 아 - 아 - - 야 어 - 양 - 어 - - 요

1)봄씨 : 봄시다

<부록 7> 영감분풀이 모듬별 가사창작 학습지(3차시)

<가사 창작 학습지>

()학년 ()반 ()모듬
모듬원 이름 ()

※모듬별로 '서우제소리'의 가사를 바꾸어 노래 불러 봅시다.

-매기는 소리-



- 1.()
- 2.()
- 3.()
- 4.()

-받는 소리-



()

※ 국문초록

제주 무악(巫樂)의 초등가창교재 개발 연구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를 중심으로-

강 영 아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 국악초등교육 전공

(지도교수 조 영 배)

우리 문화와 전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으로써 국악교육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국악과 관련된 제재곡이 비중 있게 다루지고 있다. 하지만 제재곡이 대부분 민요, 전래동요, 창작국악동요에 국한되어 있다.

제7차 초등학교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는 음악과의 목표를 ‘다양한 악곡을 경험하여 음악 개념을 이해하고 가창, 기악, 창작, 감상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표현력과 사고력을 길러 음악에 대한 심미적인 안목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르는 데 있다.’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에게 현 제재곡 이외에 더 다양한 국악곡을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는 효과적인 음악 제재곡 지도 방안이나, 국악기 기능 습득을 중심으로 연구된데 대하여 본 논문은 국악 교육의 다양성을 위하여 음악 교육화 연구가 전무했던 무악, 그 중 제주의 무악을 초등가창교재로 개발하여 학습자가 다양한 음악적 경험하고 음악성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으로

첫째, 제주 무악의 종류와 특성을 살펴보고 제주 무악의 교육적 의의를 파악하였다.

둘째, 현행 교육과정에서의 국악의 방향과 특성 및 국악과 관련된 학습 내용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의 개요를 설정하였다.

셋째, 초등가창교재 개발을 위한 선율 추출의 방향과 원칙을 밝히고 제주 무악의 천지왕, 멩감, 영감본풀이의 선율을 추출하였다.

넷째, 추출한 선율을 음악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 그 원칙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재별 수업 지도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을 기준으로 짜여졌으며, 효과적인 가창 학습을 위해 가창 활동과 그 이외의 기악, 창작 활동을 병행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다른 학년을 대상으로 교육하고자 하면 교재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 의해 개발된 제주 무악의 초등가창교재를 통해 학생들이 제주 무악에 대한 관심을 높여 제주 음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적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한다.

무악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의 문화유산 중 하나였다. 지금에서야 무악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무악의 교육적 활용 연구, 특히 무악의 여러 가지 중, 무가(巫歌)의 음악 교육 활용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 이후에 제주 무악은 물론 무악의 음악 교육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

※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for Elementary Song of Jeju Shamanist Music
- Focused on Cheonjiwang, Menggam and Younggambonpulri -

Kang YoungA

Major in Korean Music Education For Elementary

Graduate School of Korean Music Education

Jungang University

(Advising Professor: Cho Young-bae)

As an interest in Korean cultures and traditions are mounting, a greater emphasis is currently placed on Korean music education than any other time. Theme music related Korean music are significantly addressed in the elementary curriculum under the understanding about this importance of Korean music education. But theme music is for the most part confined to polk song, traditional children's song, and creative Korean children's song.

In the 7th elementary music curriculum, it is presented that the purpose of the music subject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usic through experience of diverse musical pieces and foster the aesthetic vision and desirable value view by cultivating the creative expressive

ability and thinking ability through the activities of singing, instrumental music, creation and appreciation. Therefore, schoolchildren should be provided with an opportunity to meet a variety of Korean musical pieces other than theme pieces.

Existing studies dealt with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theme music or the acquisition of the function of Korean musical instruments. But this study attempted to enable learners to have diverse musical experiences and musicality by developing the shamanist music lacking in the study on the education of music, the shamanist music of Jeju, into the teaching material for elementary song for the diversity of Korean music education.

To probe for the development of Jeju shamanist music into teaching material for elementary song, this study attempted:

First, to investigate the kind and characteristics of Jeju shamanist music and identify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of Jeju shamanist music;

Second, to investigate the direction and characteristic of Korean music and the content of learning related to it in the current curriculum and the outline of teaching material for elementary song of Jeju shamanist music based on it;

Third, to clarify the direction and principle of eliciting the melody for developing the teaching materials for elementary songs and elicit the melody of Cheonjiwang, Menggam and Younggambonpulri; and

Fourth, to set the principle to apply the elicited melody to the music class and develop the teaching method by theme based on it.

Developed teaching materials were organized to carry out the singing activity and other instrumental music and creative activity side by side for effective song learning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of learning required in the curriculum. And it is inevitable to reorganize teaching materials if they are to be taught to elementary 5th- to 6th-grade children.

It is expected that the teaching materials for elementary song of Jeju shamanist music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come the basis for development of Jeju music by enhancing schoolchildren's interest in Jeju shamanist music and have an educational effect of enhancing musical creativity through diverse musical experiences.

shamanist music has been one of the Korean cultural heritages disappearing due to people's negative consciousness of it. It is necessary to have a proper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shamanist music and carry out a study of it actively. But research on the schooling of shamanist music has still almost not been carried out.

It is anticipated that this study will become the starting point for research on the schooling of shamanist music and diverse studies on the scheme for schooling of Korean shamanist music as well as Jeju shamanist music will actively be carried out in the future.